AUG 1 4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 9 ... LIBRARY
UNIVERSITY ...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52 1981년6월29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June 29. 1981

한국일보 토론토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민족의 보람 4명에 한인민족상 시상

대망의 한인민족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상오11 시 80여명의 각계유지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본사제정 한인민족상 위원회(위원장 구상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시상식은 김춘탁위원의 윗트쉬인 사회로 진행, 국민의례에이어 민족상취지설명을 겸한 구상회위원장의 개회사, 이석현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14명의 위원소개후 시상에 들어갔다.

시상에 앞서 수상자의 약력, 공적등 프로필 소개가 있었다.

예술상의 박재훈씨는 박충도위원(문협회장)이, 김용순씨는 강신봉위원 (한인연합회이사장)이, 공로상의 전택균씨는 양혜신여사가, 봉사상의 장근수 씨는 사회자 김씨가 각각 소개하고, 이어 트로피는 구위원장이, 부상은 김명규사장, 이축길 부위원장, 안병원 위원등이 수상자에게전했다. (<캐너더뉴스>5월13일자 참조)

이총영사를 대리하여 박영철 부총영사는 해외에민족의 긍지를 심는 한인민족상 제정을 상찬하고, 수상자들의 헌신적 봉사및혁혁한 공로를 높이평가, 앞으로도 민족의 자랑인인사들이 많이나와 이 상을 빛내주기를 당부한다는 축사를 했다.

수상자 일동을 대표하여 답사에나선 전택균씨는, 한인으로서 마땅히 할일을한데대한 과분한 영광에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인사회및 이땅의 복지, 문화를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을 다짐했다.

수상자중 봉사상의 장근수박사는 이날저녁 모국과학기술연구소에 교환교수로 출발하는 경황중에도 워터루에서 식장으로 달려와 갈채를 받았다.

예술상의 박재훈박사는 작곡·코러스 지휘,합창단육성등 음악면의 공적으로, 같은 예술상의 김용순씨는 수십차에 걸친 찬조출연, 공연등을통해 한국무용을 이땅에 심고,후배를 양성한 공적으로, 공로상의 전택균씨는 한인회,종교계등 지도급 인사로 이땅한인이민사 초기경부터 계속이바지해온 공적으로, 또한 장근수박사는 키치너, 워타루지역 한인사회 기틀을잡아주고, 한글학교 창설, 운영등 봉사면의 뛰어난공로와 모국의 후진과학도를 불러와 학자로 양성하는등 봉사면의 뛰어난 공적으로 이날 민족상의 인물이 됐다.

이날 시상식의 끝순서는 한인연합교회 성가대의 이혜련씨 독창, 새한교회성가대 지휘자 문남귀씨의피아노 반주로 찬송가"어서 돌아오오"였다. 이곡은이번수상자 박재훈씨의 작곡으로 일동에게 더욱 감명을 주었다.

정오경 시상식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커피, 청량음료를 곁들인 오찬으로 즐거운 대화·친교의 시간을 하오 3시경까지 보냈다.

이날을 축하하여 동업,코리언저널사, 한인연합회, 실업인협회가 화분을 보내왔으며, 구상회위원장은금1봉을 회사했다.

우편파업시작

30일자정부터 전국규모로

전국적인 우편파업이 30일밤 자정을 기해 시작된다. 23,000명의 회원을 가진 우편노조(CUPW)는 정부가 노조요구를 수락하지 않는한 재협상조차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편노조의 요구조건은:

①17주간의 유급임산부 휴가
②1월2일 휴무
③5년근무후 4주휴가
④야간근무자 봉급인상
⑤건강안전 개선
⑥비밀감시 카메라 증설금지등이다.

클로드·패로 노조위원장은 "이 조건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라면서 "정부측의 성의가 없는한 파업해결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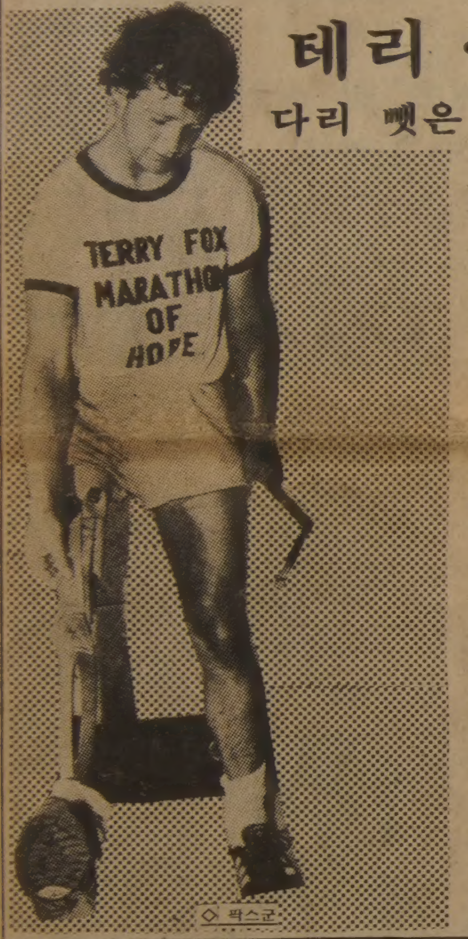
정부측은 우편노조의 요구조건을 받아주면 또 다른 연방정부기관 노조원의 파업가능성 때문에 우편노조 요구를 강경하게 거절해왔다.

현재 2년근무 우편국 직원의 임금은 시간당 $9.33이다.

◇제1회 한인민족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장근수·전택균·김용순·박재훈. 오른쪽에는 구상회 민족상위원장.

테리·팍스 숨져

다리 뺏은 암에 생명마저 앗겨



◇팍스군

테리·팍스의 한쪽다리를 빼아간 암은 이번에는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28일새벽, 23세의 생일을 한달앞둔 캐나다의영웅팍스는 그의가족들이 지켜보는가운데 로얄·콜럼비아 병원(뉴·웨스트민스터 B.C)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브리티쉬·콜럼비아대학생인 팍스는 작년 4월암으로 잃은한 다리를 의족으로 대신, 암퇴치 연구금모금을위한 캐나다 동서횡단 단독 마라톤을 계속하다가 폐암에 걸려 중단했다.

그는 대서양연안 세인트·존스에서 시작, 예정거리의 절반지점인 온타리오 선더베이까지 걸어왔다.

암때문에 성한다리를 잘리우자 암퇴치에 인생의전부를 맡긴 팍스는 아이로닉하게도 다시 암의무자비한 공격앞에 속수무책 이었다. 인간이 개발한 현대의학은 암에 관한 한 아직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지못했다.

도보횡단중 토론토에 들른 팍스는"외다리로 뛰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암으로 신음하는 수만명의 환자를 생각할때 이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게 팍스의 장례식까지 반기를 달도록 명령했다.

트루도수상은 팍스의 죽음을두고"우리모든 국민은전국방방곡곡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이 젊은이의 죽음을 다 같이 슬퍼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팍스가 병원에재입원했을때 연방정부는팍스를위해 기념우표를 발행키로 했다.

팍스군의 장례식은 2일 하오2시 거주지인 포트·코퀴틀럼에서 가족장으로 거행된다.

팍스가 모금한 연구기금을받은 암연구협회는 같은날 전국각지의 지부에서팍스 추모예배를 갖는다.

팍스군은 캐나다의 최고훈장인 The Order of Canada를 받았다.

캐나다 암연구협회는 팍스군의 유지를 받들어 "희망의 마라톤"을 캐나다 전국 곳곳에서 계속키로 했다.

〈알 림〉

1일은 "도머니언·데이" 공휴일이므로 이날 본사는 휴무합니다. 따라서 이날 「한국일보」는 현지판 없이 발행됩니다.

◇민족상 수상자들이 민족상위원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안병원·구상회·이석현·장근수·김명규·전택균·이축길·김용순·강신봉·박재훈·김춘탁씨

토론토발행인: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 P 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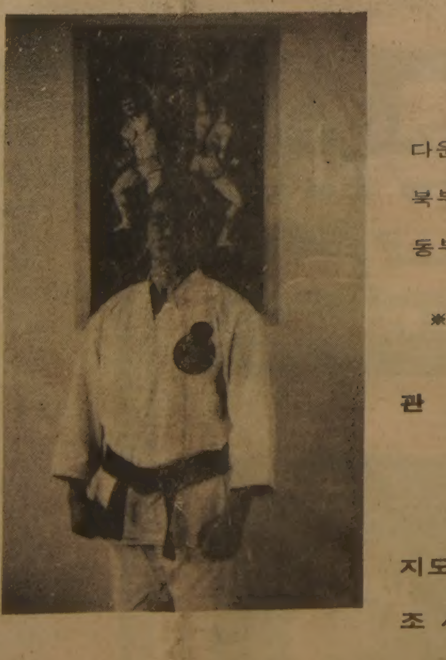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Wanin Taekwon-Do

이는
이경태 사범이
아직까지도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사범이요 태권도 전문인으로써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가 중하고 태권도의 과학화와 무도철학의 정립을 위한 사명감이 중함에 따라 연구·정진하여 온 바를 체계화 시킨 태권무도 입니다.

1. 완인태권도는 수련상의 제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술을 익히고 그 과정으로서 무예를 닦는 것을 정도로 합니다.
2. 완인태권도는 무술및 무예로서의 지도방법과 기술적인 내용을 과학화한 무도이며 이의 절대적인 우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 완인태권도는 정신적인 발달및 인격적 확립을 위하여 무도철학을 정립·개발시킵니다.



Kyong Lee Taekwon-Do Centre
세계태권도연맹·카나다태권도협회가입 회원 도장

다운타운도장	615 YONGE ST. (at Isabella St.)	929-5511
북부도장	2281 YONGE ST. (at Eglinton Ave.)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Ave.)	759-2500

※962-3000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통화중이나 응답이 없을 때).

관 장: 이 경 태
이곳 토론토에서 최초로 태권도 보급(1967)
건국대학교 태권도부 사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
제3회 세계태권도대회 카나다국가팀단장
카나다태권도협회회장(1977~1980)

지도사범: 이 현 우 태권도5단

조 사 범: 존·웨잉거스트(3단), 랜디·매다(3단), 멜·암바랄리(3단)

45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6·25맞아 참전용사 위안
다시 다진 한·가 유대
5백여명 참석, 휠·체어의 미망인도 나와

6·25 31주년을 회상, 캐나디안 참전용사들을 위안하기 위한 참전용사파티가 25일밤 다운스뷰 소재 캐나다군 보급기지에서 열렸다.

토론토총영사관이 마련한 이 행사에는 약 5백명의 용사부부, 교민부부등이 모였으며, 나이트클럽 오리엔탈팔레스가 제공한 악단과 캐나다군이 제공한 스캇티쉬·백파이버 밴드가 흥을 돋우었다.

교포부인들은 모두 한복을 입었다.

이상훈 총영사는 참전용사들과 한국전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의 자유를 위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한국민은 이러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총영사는 이어서 현한반도 정세, 전대통령의 남북수뇌회담 제의,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관계를 설명하고,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총영사는 마리·뷰드리 여사등 8명의 미망인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고든·루카스 참전용사회 토론토지부장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도리스·틸리여인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 더욱 많은 박수를 받았다. 틸리여인의 남편은 한국서 훈장 2개를 탔으며 폐질환에 걸려, 귀국했다가 사망했다. 틸리여인은 남편이 싸운 한국에 가보고 싶지만 신체조건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안타까와했다.

노년회의 조영호 여사등이 만든 한식을 들은 참석자들은 가수 박소영양등의 노래에 맞춰 한·가 합동댄스를 췄다. 토론토서 열린 참전용사 파티중 최대규모인 이날 모임에는 토론토지역에 거주하는 최고위자인 라·로스 중장(퇴역), 전국참전용사회 부회장 레이·브라운, 다운스뷰 보급기지사령관 와들 대령, 토론토지역 사령관 로우 대령등과 런던에서 30여명 용사들이 대절버스를 타고 참가했다.

참석자중 절반 이상이 캐나디안이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6인조 스캇티쉬밴드는 순서를 시작하기 전과 도중에 백·파이프음악을 연주했다.

이번 파티장소 주선등에는 2년간 주한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9월 귀국한 크라슨 중령의 공이 컸다.

이날 같은 시간에 오타와, 몬트리얼, 뱅쿠버에서도 참전용사를 위한 파티가 한국정부 주최로 열렸다.

전국의 참전용사 1,027 명중 현역 장군 알랜드, 로킹햄, 버거씨등 3명이다.

감사패를 받은 사람은 고든·루카스 (탄약수송운전사), 월터·윌슨, 로버트·그랜트씨이다.

◇이상훈총영사를 강제로 끌어내 함께 디스코를 추게한 참전용사부인이 서투른 춤을 추다 안경이 떨어진 총영사의 손을 잡고 못들어가게 하고 있다.

퀘벡문제에 불간섭
미테랑, 트루도에게 확약

(파리) 유럽 순방중 프랑스에 들른 피에르·트루도수상은 프랑스의 미테랑 신정부가 퀘벡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새 대통령 미테랑은 트루도수상과의 장시간 회담후 "프랑스는 캐나다연방정부와 퀘벡주정부 사이의 어떤분쟁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프랑스 여당 사회당 고위관리들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주의 분쟁에서 퀘벡당을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번 세네갈에서 있은 프랑스연방제국기구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들의 모임) 창설모임에서 퀘벡의 가입문제로 기구창설이 지연되었다.

트루도수상은 다음달 오타와에 있을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전에 퀘벡에 대한 프랑스간섭배제확약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

트루도수상은 미국의 비난을 받은 공산당을 포함한 프랑스 신정부구성에대해 "우리는 어느정부가 어떻게 각료구성을 하던지 말할 권리가 없다" 라고 말했다.

외국관광객들 하루 $1백 소비

(서울24일=연합)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들은 평균 7.3일을 체재하고 1인당 하루평균 미화 1백달러, 도합 743달러를 소비한다.

24일 국제관광공사가 밝힌통계에 따르면 한국서는 서울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높은 도시이고 다음이 부산, 용인의 민속촌, 경주의 고적들, 판문점 제주도등도 인기가 좋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사가는 선물은 인삼, 보석류, 식품, 도자기, 직물, 장난감의 순서이다.

불만이었던 점은 언어장벽, 출입국수속의 불편 및 택시운전수의 불친절등이었다.

사고

우편파업중 무료픽업

캐나다의 고질인 우편파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독자 여러분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신문을 받아보시지 못하게 됐읍니다.

본사는 파업중이라도 신문을 계속 발행했다가 파업이 끝남과 동시, 일제히 발송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본사는 각식품점과 음식점의 협조를 얻어 주 3일 배달, 독자 여러분이 무료픽업하실 수 있도록하며, 각종교단체 모임과 한인사회 행사때마다 신문을 전달, 무료배부토록 하겠읍니다. 그외의 배달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파업이 오래 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본사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실을 감안, 독자및 광고주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앙망합니다.

— 한국일보—토론토사 드림 —

화랑팀 우승
제11회 대통령배쟁탈 국제축구선수권대회

(서울27일연합=본사특약) 26일밤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11회 대통령배쟁탈국제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전년도 챔피온 한국국가대표 화랑팀은 아르헨티나 프로팀인 레이싱·디·코도바팀을 맞아 투지와 팀웍으로 잘싸워 2대2로 비김으로써 7번째 우승을차지하게 되었다.

시작휘슬이 울리자 한국화랑선수들은 용감한 투지로 개인기 위주의 레이싱팀을 압도해 나갔다. 그러나첫 골은 아르헨티나의아무차스케티가 시작 6분만에 화랑팀 골문에 꽂았다.

여러번의 슈팅찬스를 놓친 화랑팀은 후반들어 정해원 선수가 동점골을 퍼뜨림으로써 타이를 이루었다.

이후 양팀은 한골을 주고받아 2대2타이를 이룬채 연장에 들어갔다.

연장서도 득점없이 비겨 관례대로 우승배를 같이차지하게 됐다.

이날 3,4위전은 브라질이 우르과이를 1:0으로눌러 3위를 굳혔다.

브리쟈드 연전연패

24일밤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거행된 북미프로축구 리그에서 토론토·브리쟈드는 미네소타·킥스에게 3:1로 패해 7 연패를 기록했다.

금년도 브리쟈드의 통산전적은 4승14패로서 북미리그동부지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있다.

하키, 야구, 축구, 미식축구등 4개의 프로팀을갖고있는 토론토는 4팀모두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한인들 영어공부에눈떠
씨알학교 특별강좌 개최

씨알한국인학교(교장 유희자, 이사장 강공선)가개최한 부모를위한 씨알교육강좌"자녀들의 영어를 어떻게 도울수 있나?"는 백여명 학부모의 진지한열의속에 20일 아침 9시부터 3시간반 동안 진행됐다.

강사인 윤종석씨는 영어가 능숙하지못한 부모로서 자녀의 영어학습을 도울수 있는방법의 하나로 참고학습교재(SRA)를 소개, 그 사용법을 설명했다.

오후 12시반까지 계속된 이날강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위해 사줄수있는참고서적 전시및 판매도 있었다.

강사윤씨는 미시사가의 국민학교에서 다년간 교사로 종사해 왔다.

씨알학교는 이날 소개된 SRA교재를 구매, 금년 여름학기부터 선택과목중의 하나로 포함된 영어시간에 사용할 계획이다.

SRA는 가격이 350 달러, 200달러등 두가지가있으며, 각 과목을 학생 이 혼자자습, 학습진행을기록할수 있도록 돼있다.

강사윤씨는 이날 학습평가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모들의꾸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이와비슷한 방법의 수학보충교재도 있다.

윤씨는"자녀들의 영어가 부모보다 낫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조건 자녀들의영어실력을 믿고있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인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애들은 영어를 저절로 배우니까 영어공부를안 시켜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으나 일부전문가들에 의하면 "저절로 배우는 영어는 보통수준의 영어일뿐 대학공부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는 결코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초·중·고 교과과정에서는 영어 비중을 크게두어 시간을 많이 배정하나 캐나다태생인 대학생들도 영어에 골머리를썩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석씨가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와일드·캐츠"팀 창단
"화랑"이어 두번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캐나다지부 중등부 창단식이 이상훈 총영사를 비롯, 70여명의 학부모, 교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26일밤웨스트우드·아레나 링크에서 거행됐다.

10~13세의 토론토지역 한인교포 자녀들 19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와일드·캐츠"로 불리운다.

"와일드캐츠"팀은 고등부 "화랑"팀에이어 토론토지역에서는 두번째 한인팀으로 내년도 동계모국체전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연습은 매주 금요일 웨스트우드 아레나에서 실시한다.

금년도 화랑팀의 계획은 이번8월초 한국고교 우승팀 보성고교팀을 토론토로 초청, 친선경기를 가질예정이다.

김병운신부 부임 런던한인천주교회

(런던)런던한인천주교회는 지난17일 부임한 새 주임 김병운(베네딕도)신부를 맞이했다. 김신부는한국으로부터 이날밤 토론토공항도착, 부임했다.

전임자 유장훈신부는 7월2일 귀국길에 오른다.

새 주임신부를 맞은 런던한인성당은 지난 28일(일)디트로이트한인천주교회 신자들을 런던으로 초청, 합동으로 주일미사를 드리고, 양교회 친선운동회를 열었다. 장소는 그린·웨이공원.

★★★★★★★★★★★

여름밤을 식히는 노래·만담의 향연

7월3일(금) 하오7시30분

센트럴·테크니칼·스쿨 (베더스트×하보드)

★★★★★★★★★★★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㉑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그들은 해변을 따라 정착하고 바다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에스키모와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사람 이라는 뜻을 가진 "이할미우트"라고 자신들은 불렀다. 이할미우트족이 이 땅을 알고 끝없는 공간을 방황하며 살던 이때 넓은 카잔강 옆에 있는 리틀 레이크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에 바렌땅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병마와 굶주림이 각캠프마다 그들을 습격 했을때 이할미우트족은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 와야 했던것은 자연스러웠는지 모른다.

1940년 마지막으로 버티였던 캠프마저 부서지고 말았다. 내륙에 사는 이들이 전멸 상태에서 살아남은 몇사람은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텍·할로 그리고 리틀힐의 작은 산 밑에 있는 가꾸미레이크에 다시 돌아와 살게되었다. 이곳은 그평원의 전역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지막 요새였고 주위환경에 포위된 상태에 있었다.

이 요새는 벽도없이 이들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포위된 중압감이 사람들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재기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방위벽 같이 보였다.

적은 많았다. 그중에서도 제일 무서웠던 것이 기근과 질병이었다. 이것은 이땅에서 처음겪는 것이었고 이할미우트족이 겪어나갈 수 있는 어떤 재난 보다도 강한 것이었다.

1946년 가을 쯤에는 살아남은 몇 사람들은 리틀레이크의 황폐한 기슭에 모여살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견디어 나갈 수 있는데까지 이 끊임없는 재앙과 싸워 나갔다. (1947년 여름 디프테리아 일지도 모르는 병으로 이할미우트족의 남녀 아이들을 포함해서 18명이 죽어갔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 중에 앙글레얄락의 식구들이 있다. 그의 텐트에는 매우 노령인 어머니와 익톡이라고 불린 처와(아내) 쿠니이, 아노티일릭 그리고 파마의 세아이가 살았다. 익툭은 현모양처 였지만 오랫동안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해서 입을 틀어막을 때는 흰 여우털 옷을 붉게물들였으며 기운을 못 차렸다. 앙그레 알락은 뛰어난 사냥꾼 이었지만 아무것도 못잡는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그의 낡은 총의 긴 탄창에는 실탄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을 봐서 넘어트리지를 못했다.

늙은 어머니는 삼백여명의 이할미우트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괴이한 죽음의 시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매년 겨울 그 여자는 봄철이 오는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지만 매년 봄마다 또 다음해 겨울을 보면서 살았다. 쿠니이와 아노티일릭은 아직 작은 어린아이었다.

아노티일릭은 좀 성장해서 식구들의 배를 채워주었던, 이제 없어지고만 동물들의 이야기가 단순한옛날 애기로 끝이났던 긴 사냥여행에 아버지를 따라 갈만큼 자랐었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사냥꾼을 노하게 만든것은 아마도 이곳에 그가 있으므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비극을 초래하는 조건을 조장 시키지 아니 했는가 하고 강하게 느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이할미우트 족 한테서 털을 가져오게 했던 자기 아버지나 다른 무역자들은 이들에게 자기들이 먹을 짐승을 잡게하는 것보다 여우 가죽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켜 주었다. 그래서 몇십년동안 그 사람들은 매년 가을마다 풍부한 사슴을 잡아두는 것을 게을리 했다. 대신 흰 여우를 덫을 놓고 잡는 법을 익히고 털을 밀가루와 총탄으로 바꾸는 것만 배웠다. 이할미우트 족속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털 무역자들이 온후로 활씬적은 노동으로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만족하고 말았다. 그러나 털무역이 큰 이윤을 못 남기고 큰 상사가 문을 닫았을때 죄없는 이 사람들이 배운 새로운 생활 방법은 죽음을 몰고왔다.

한때 사슴을 잡던 뛰어난 사냥꾼들이 대신 여우를 잡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우가죽을 먹을수는 없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방법을 다시 바꿀수가 없었다. 만일 이 겨울 여우를 덫을 놓아 잡아 두었다가 가죽을 남쪽으로 가져가면 "틀림없이"무역자들이 돌아왔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사냥꾼들이 남쪽으로 와 보니 무역소는 텅 비어 있었고 몇년동안 그냥 서 있으면서 썩어가고 있었다.

무역자들은 다시와서 이윤이 채워질 동안 잠시 머물고는 훌쩍 떠나버렸다. 그들이 저지른 파괴행위에는 아랑곳이 없었다. 프란쯔는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었으며 이 잘못된 파괴행위의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계속)

1981년 7월3일(금) 7 : 30 P. M.
CENTRAL TECHNICAL SCHOOL 725 Bathurst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 안

영어수학 특별지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과 실력에 따라 다음의 교재를 준비지도해 드립니다.)

1) Vocabulary Development(단어실력 양성) (10 Lessons)
2) Comprehension 1, Comprehension 2(이해력 양성) (각 10 Lessons)
3) SRA(SRA교재) 1권(10 Lessons)
4) Novel Study(소설) 두권
5) Mathematics Problem Solving(수학응용문제) (10 Lessons)

(약 1개월분. 학교서 영어 수학 공부의 ½정도 분량)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Profile을 작성해 아래주소로 보내주십시요.

STUDENT'S PROFILE

1) Name ______ 2) Address ______
3) Tel. ______ 4) Grade in Sept. ______
5) Think very carefully and circle one of the underlined, This is very important in designing your learning materials, In my class(grade), I am
a)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in Reading(English)
b)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in mathematics
c) I readbooks not fluently, fluently, very fluently
d) my 2 favourite subjects or hobbies ______ ______

1429 MALIBOU TERR., MISSISSAUGA, L5J 4B9
TEL. 822-5735 현 캐나다 영어·수학교사 윤 종 석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會長 張康在
發行人 洪惟善
編輯人 鄭泰演
印刷人 李基和
編輯局長 權赫昇

全대통령·수하르토 要談

아세안巡訪 첫寄着地 자카르타安着

"韓國과 印尼는 同伴·協力者"

到着聲明

兩國 긴밀한 友好관계 역설

14泊15日 南國旅程 첫밤

말리크副統領접견·晩餐참석

오늘 첫頂上會談…共同聲明 발표할듯

【자카르타25日=尹國炳특파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상호이해와 信頼의 「공동목표」위에섰다。 25일 역사적인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5개국巡訪길에오른 全斗煥 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이날 하오5시50분(한국시간·이하같음) 이번 巡訪의 첫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수도 자카르타에 무사히 安着, 韓·아세안협력의 첫章을 열었다。

全대통령은 자카르타의 할림국제공항에 도착후 聲明을 통해 韓·인도네시아 양국간의 同伴者및協力者로서의 긴밀한 友好관계를 역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6시50분 메르데카宮으로 수하르토 대통령을예방, 25분간 인사교환과함께 회담을 가진데 이어 숙소인 영빈관에서 말리크부통령 내외를 접견했으며 이날밤 10시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이 네가라宮에서 베푼 공식만찬에 참석후 14泊15일에걸친 南國旅程의 첫밤을 보냈다。

全대통령은 26일낮 메르데카宮에서 韓·印尼頂上회담을 갖고 최근의 아시아및 세계정세에 관한 의견교환과 함께 한국과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경제·資源·기술등 각분야에걸친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며 이어 午餐을겸해 열리는 양국經濟장관회의에 참석한뒤 기자회견을 가질예정이다。

자카르타 到着

이날상오 11시 대통령 특별기편으로 金浦공항을 떠난 全대통령일행은 6시간40분간의 논스톱 비행끝에 하오5시50분 자카르타의 할림국제공항에 정시 도착, 수하르토 대통령, 말리크 부통령 내외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측 3部요인들과 의전관계자및 僑民대표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全대통령과 李順子여사는 駐印도네시아 대사 禹宇錫와 아베 인도네시아 儀典長의 機上영접을 받고 이어 공항에 마련한 환영식장에 참석, 인도네시아儀仗隊를 사열하고 현지外交團, 軍將星, 駐韓公館직원및 僑民대표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全대통령은 도착성명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여러분야에서 상호보완성에 입각한 공동협력자로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계속은 양국에 공동이익을 가져올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자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돼가는 오늘날의 추세로보아 국가간의 협력관계 유지는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있다』고 전제하고 『같은 아시아에 위치한 우리 두나라가 그간 이룩한 상호이해와 공동이익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바람직스럽고 다행한일』이라고 말했다。

全·수하르토交驩

全대통령내외는 25일 하오6시50분 메르데카宮으로 수하르토대통령내외를 예방, 25분간 공식인사를 나눴다。

印尼대통령晩餐

全대통령내외는 이날밤 10시 수하르토 대통령내외가 네가라宮에서 베푼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양국원수내외는 만찬에 앞서 선물교환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자리에서 全대통령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 答辭를 통해 자신의 이곳 방문을 초청해준 印尼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일행은 만찬후 민속공연을 관람했다。

◇손들어 出國人事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시대의 開幕을 위해 25일 14泊15日의 아세안5개국 순방길에 오른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出國직전 대통령특별기에 올라 환송인사들에게 손을들어 답하고있다。

◇수하르토大統領

美佛의 軍事機密유출 우려

共産黨4명 政府참여로 "「나토情報」보호 銳意주시"

【워싱턴25日AP합동】 레이건행정부관리들은 프랑스정부에 4명의 공산당각료가 입각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군사기밀의 유출을 방지할수 있을 것인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관리들은 미국과 우방으로서의 미·프랑스관계의 농도와 내용이 프랑스공산당의 정부참여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레이건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4일 발표한후 이같이 논평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관리는 미국은 나토가 군사정보들을 프랑스정부에 제공하기전에 프랑스정부가 나토의 비밀을 어느정도 보호할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볼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가 군사동맹국인 관계로 미국및 우방에 러의를 품은 일단의 사람들이 프랑스정부에 참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3면

이 ACB방송은 미테랑대통령이 레이건美 대통령에게 프랑스국가안보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공산당각료들이 제외된 5~6명의 각료들에 의해 다루어질것임을 은밀히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성측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전혀 논평을하지 않았다。

미테랑佛大統領、레이건에通報 "共産黨閣僚 安保엔불간섭"

【워싱턴24日AP합동】 레이건美대통령은 프랑스사회당정부에 입각한 共産黨출신각료들이 국가안보에관한 기밀정보에는 전혀 관여하지않을것이라는 확약을 미테랑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美ABC방송이 24일밤 보도했다。

北傀와 政治交流 不願

스즈끼首相 빠른시일내韓·日頂上회담希望

【東京25日=宋孝彬특파원】 스즈끼 일본수상은 25일하오 韓·日의원연맹 한국측 간사단과만나 『韓日 외상회의를 바탕으로 한일각료 회의를 실현시킨뒤 빠른시일내 양국의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한일정상회담을 실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관저에서 7명의 한국의원들과 하오3시30분부터 1시간동안 간담하고 『한국과의 우호유지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위해 중요하기때문에 북한과의 정치교류는 일체하지않을것』이라고 밝히고 『정치활동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입국한 북괴인사가 아사히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全대통령에대한 비방의발언을 한것은 유감스러운일』이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533-2361

對韓석유輸出증가 印尼석유회사밝혀

【자카르타24日AP=합동】 인도네시아는 현재 하루 약1만배럴에 달하는 對韓석유수출량을 증가할 계획이라고 24일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의 유도·숨보노 사장이 말했다。

"아세안과 技術유대등 緊要 相互補完的 협력 成長촉진"

出國聲明

全대통령、어제 東南亞5國巡訪 登程

全斗煥 대통령은 15일동안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泰國 필리핀등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5개국을 巡訪하기위해 25일상오11시10분 令夫人 李順子여사와함께 20명의 공식수행원을 대동하고 보잉707 특별기 便으로 떠났다。

全대통령은 이날 出國에앞서 金浦공항에서 出國성명을 통해 『최근의 국제환경, 특히 東아시아정세의 추이를 살펴볼때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상호협력관계강화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5개국은 비슷한 수준의 개발도상국들로서 경제및 기술면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와 경험의 교환을통해 서로 유익한 성장촉진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번 東南亞방문을 통해 우리의 강렬한 평화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太平洋지역의 평화정착문제에 대해 이지역국가들과 진지한 토의를 가질생각이며 이들 5개국 국민에게 우리의따뜻한 우정을 전하고 새시대를 개척해 나가고있는 우리의 참모습을 설명할것』이라고 강조하고 『낯선 他國熱帶의 밀림에서 조국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해 땀흘려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과 근로자및 교민들을 만나보고 그들을격려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공항에서 丁來赫국회의장 兪泰興대법원장 南悳祐총리등 3府要人과 軍고위장성 駐韓외교사절 國政자문위원등 8백20여명의 환송을 받았다。

이날 全대통령의 아세안방문 登程에는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盧信永외무장관 周永福국방 朴鳳煥동자부장관 金善吉상공 李圭孝건설 차관 靑瓦臺의 金璟元비서실장 鄭東鎬경호실장 金炳薰의전 禹炳圭정무제1 金在益경제 李雄熙공보 許三守司正수석비서관등 공식수행원20명과 11명의 비공식수행원이 同行했다。

全大統領 아세안巡訪 오늘의 日程(한국시간)

▲상오=英雄墓地헌화
▲〃=韓·印尼頂上會談
▲낮=經濟장관회의
▲하오=기자회견
▲〃=자카르타市廳방문
▲〃=국제박람회참관
▲저녁=한국大使주최리셉션
▲〃=비공식晩餐

尹國炳次長 수행

本社정치부 尹國炳차장(사진)은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巡訪을 취재하기위해 25일상오 대통령특별기에 同乘、출국했다。 尹차장은 오는7월9일까지 14泊15일간에걸친 대통령의 5개국 순방기간 동안 각국 수뇌들과의 정상회담을 비롯、각종 동정을 취재한다。

韓國·印尼협력增大 工業技術제공 용의

全大統領、印尼 國營TV와會見

【자카르타24日안타라=합동】 全斗煥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국영 TV·RI와 가진 최근의 단독회견에서 한국·인도네시아간의 협력관계가 앞으로 확대·심화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全대통령은 24일 TV·RI에 방영된 靑瓦臺회견에서 25일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수하르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양국간에 존재해온 전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기간산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에 언급、가장 주목할만하고도 명백한 양국협력의 상징은 한국기업이 참여한 자카르타와 시아위간의 자고라위 유료도로및 시비농시멘트공장 건설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축적한 공업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제공할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인도네시아에 에너지관련산업개발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착수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韓·인도네시아경제협력촉진의 효과적인 방법은 양국 기업체간의 합작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社會漫評

頂上을 찾아…

地平線

몇달사이를 두고 우리는 귀에익은 砲聲을 다시 듣는다。 말끔히 단장한 金浦공항 광장。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자 禮砲가 울려퍼진다。 한발, 두발, 세발…。 정확히 3초 간격을 둔 禮砲소리는、空砲라 그런지、그울림이 실탄과 다르다。

▼어제 아침 全斗煥대통령의 환송식을 텔리비전 중계로 보며, 불현듯 지난 2월 대통령 내외가 訪美길에 오르던 장면을 생각한다。 그때도 禮砲소리에서、새로운 轉機같은것을 느꼈었다。 그때같은、약간은 긴장된 분위기는 없으나、이번 禮砲소리에서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契機를 생각하는 숙연함을 느낀다。

▼아마 儀式을 존중하기는 外交와 軍이 으뜸인성 싶다。 主權의 존엄을 앞세우는 外交에 格式이 없을 수 없고、상하계급이 분명한 軍에서는 軍禮를 존중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까다로운 外交행사에는 軍禮를 원용하여 장중함을 더한다。 더구나 軍의 최고 통수권자인 국가원수를 맞고 보냄에 軍禮가 따름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것이 禮砲。

▼禮砲의 시작은 군함의 외국 군항출입절차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른다。 敵意가 없음을보이기위해、빈 함포로서 로를 대한다는것이 그由來다。 21발이라는 숫자는 이런관례가 생길당시 최대규모의 군함이 21문의 함포를 실었던때문이며、손님의계급을 따라 체감되는 禮砲의 발사수가 모두 奇數인 까닭은 奇數를 吉數로 쳐던 뱃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어쨌든、敵意없음을 보인다는 禮砲의 뜻은 握手의 정신과 비슷하다。 握手의 동작을 친근감을 나타내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라 본다면、그 것이 이미 古代 이집트에도 있었다함은 이상할 것이없다。 그러나 俗說은 그것이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고、학자들은 손을 통하여 마음이 상통한다는 소박한 생각이 나타난 것이라 짐작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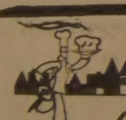
▼따지고 보면 禮砲건、握手건 우리 본디의 습속은 아니다。 처음 일본과 修好할때(1876년)、저들이 禮砲랍시고 쏜 砲소리에 질렸던 것이 우리이며、남녀가 손을맞잡는 서양풍속에 눈살 찌푸리던것이 開化期풍경이다。 하지만 禮砲와 握手의 정신은 우리 역사를 관류하는 겨레의 天性이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아세안의 이웃을 향해 편다。 東南亞의 禮砲소리를 미리 들으며、그것은 새로운 協力시대의 祝砲가 될 것이라 기대를 건다。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천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illegible]
은: 온스당 US $[illegibl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효과!
(416) 533·2361



사 원 모 집

(BAKER MANAGER TRAINEE)

모집인원: 약 간 명
자　　격: 제과(Bakery)관계 종사할수 있는 21세 이상의 남녀
년　　봉: 만8천불(이익수당40%)
훈　　련: 4주이상
SECURITY DEPOSIT: 만불 이상
장　　소: London, Brampton, Mississauaga, Aurora, Toronto, Sudbury, Ottawa, Vancouver
문 의 처: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大中華藥材行

건강관리에 녹용과 인삼을
中國良藥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onto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P. O. Box #5181 Station "A" Toronto, Ont.
◎ 매주 수요일은 휴업
영업시간: 오전11시~오후8시
전화 977-8858~9

메르데카宮서 相見禮

수하르토大統領내외 空港서 迎接
和氣속 對坐25분 兩國유대祝杯도

있었고 사열대주위에는 오부터 대사관직원과 상사주재원、교민들이 도열했으며 때마침 이곳을 방문중인 한국경제인단의 대표 20여명의 모습도 보였다。全대통령부처를 태운 보잉707특별기가 공항에 착륙하자 출영객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특별기의 해치가 열리면서 韓字錫駐印尼대사와 아베印尼儀典長이 올라가 全대통령내외를 영접했다。이어 全대통령내외가 트랩에 모습을 나타내자 손을 흔들며 수하르토대통령내외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요인들과 교민들이 환영을 표시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수하르토대통령내외의 안내로 사열대에 올라갔다。이어 애국가와 印尼國歌가 울려퍼진뒤 예포가 울렸다。全대통령은 수하르토대통령의 안내로 사열대前面으로 나가 의장대를 사열한뒤 壇上으로 내려왔다。

全대통령내외는 수하르토대통령내외와 함께 印尼儀典長의 안내로 고위관리와 외교사절단、교민대표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교포 2명으로부터 花童의 화환을 받았다。

◇…全대통령내외는 공항에서 환영행사가 끝난뒤 수하르토대통령내외와 함께 의장차에 올라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메르데카宮으로 향했다。오후 6시50분 메르데카宮에 도착、수하르토대통령 내외의 안내로 宮內 귀빈실로 들어가 영빈관에서 …

◇全斗煥 대통령 환영 채비를 끝낸자카르타의 거리모습。全斗煥 대통령이 아세안 5개국순방 첫기착지로 25일 도착할 예정인 자카르타중심가에 양국 국기가나부끼고 全대통령 부처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처의 대형초상화가 나란히 내걸렸다。【자카르타24일UPI특송=聯合】

全大統領 아세안巡訪 動靜
자카르타 第1日

토 대통령부처및 말리크부통령부처의 영접을 받고 사열을 마친후 花童2명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

이어 수하르토 대통령의 소개로 도열해있던 印尼의 外相·官房相·駐韓大使·자카르타州知事등 영접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메르데카宮 韓·인도네시아 頂上회담이 열린 메르데카宮。수하르토대통령의 집무장소인 이宮에서 양국頂上은 26일 두번째의 頂上회담을 갖는다。

◇…영빈관에서 약 2시간동안 휴식한 全대통령은 9시20분 영빈관 6층 내외를 갖는 인도네시아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韓服입은 2百餘동포환영

◇…25일 하오5시50분 全대통령내외가 도착한 자카르타 할림공항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한복을 차려입은 부인들을 비롯해 2백여명의 교민들이 나와 全대통령내외를 열렬히 환영했다。

기와 인도네시아기가 새겨진 ... 특히 全대통령내외가 트랩을 내려서면서 수백명의 교민들은 태극기와 印尼기를 흔들며 「환영/全대통령」이라는 피켓을 지하고 ... 全대통령내외는 수하르토 대통령내외와 함께 ...

社說

戰爭史와 紀念博物館
—6·25를 보내며、그 未洽을 통감한다

잊지못할 6·25의 날은 어제로써 31돌을 새기며 한고비 또 지나갔다。북괴집단을 규탄하고 反共과 再侵분쇄를 외치는 국민의 함성이 온 천지를 뒤흔들다시피한 하루였다。

그것은 분명히 30여년전의 울분을 되살리는 뜻깊은 行事였다。한데 바로 이행사직후면 해마다 아쉬워지는 그리고 속히 서둘러 해결해야할 절실한 몇몇 과제가 떠오른다。

그 첫째는 참다운 6·25戰爭史—平面史보다 당시의 우리 국민과 온 천지가 겪었던 受難相·피해상·생활실상을 엮은 內面實史를 종합하고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는 대목이다。

쓰라린 그전쟁이 끝난지 근30년이 나되는 오늘까지 이런 實錄을 集成못한채 모든 考證資料를 상실해가는 현상은 歷史에대한 큰不實임에 틀림없다。또 지금 우리들이 부르짖는 反共·民主守護의 理念이나 韓國정신·國民정신함양을위한 가장 귀중하고 값진 生敎材를 매장해버리는 소치나 다를바없다。

사실 그戰爭당시 韓國民누구든 심각한 피해를 보지않은 사람은 없다。한국내 어느부락이나 山野의 대부분이 손상을 입지않은곳은 없다。그후 유증은 길게 이어져 지금에서도 주름살이 덮여진 구석은 얼마든지있다。이 大韓民主공화국을 사랑하는 나머지 목숨걸고싸워 護衛한날자국을 최전방장병들의 奮戰相과함께 이처럼호소력있게 입증하는 眞實은 더 없을 것이다。이방대한 史實·實證들을 그대로 세월의 바다속에 묻어버릴수는 없지않을까。

우리는 이미 몇몇관계기관이 펼쳐낸 「戰史」 기록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내용 모두가 6·25의 平面史일뿐아니라 戰爭史라기보다 戰鬪史의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못한 未洽마저 없지않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國家的차원에서 大補完·大集綴이 빨리 따르도록 여기 勸請하고 싶다。

둘째는 그戰爭에 상부할만한 戰爭博物館(이름은 달라도 좋다)을 아직 세우지않고있는 落後를 또한 지적치 않을수 없다。아주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울지몰라도 지금갖고있는 여러지구의 反共전시관·安保전시관·멸공관·승공관들은 모두 단편적이고 소규모적인것에 불과하다。

그에따라 歷史性이나 考證·실증수집이 결여되고 수준또한미약하여 보는 사람들로하여금 웅대하며 일관성있는 感銘을 줄수없는실정이다。정신교육적 효과가 미약할 것은 자명해진다。

이렇게 살펴생각하면 戰後 나라가 이만큼 발전·부흥되고있으면서도 그 戰爭3년간의 軍事的유물과 승리의기념물같은것을 흩트린채 챙기지못한 현실은 좀 낯이 뜨거워진다。國際戰의 양상과 규모를 쥐었던 전쟁의 성격·연관성을 헤아리거나 觀光韓國으로널리 발돋움하려는지향점으로 보아도 분명히 失點에 속하는일이다。

이미 벌써부터 보유하고 있는 6·25이래의 敵性물자 노획품만해도 10만점을 훨씬 넘는것으로 알려졌다。그에 보태 국군과 유엔軍이 쓰던 軍用品의 종목들은 훨씬더 많을것이다。또 비단 6·25당시것만으로 국한시킬필요는 없을성싶다。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民族투쟁사적 측면에서 길이 전할만한 다른품목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 모든것들을 종합·정리·보존·전시토록할일은 확실히 국가적 큰 명제에 속한다。남들못지않게、아니 그보다 더 웅장하게 紀念박물관을 차려 祖國守護와 國防史的특성을 살리고 멀리 비쳐가게해야할 확연한 당위성이 있는것이다。

남들은 이 과제해결에서 우리보다 앞선 실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美·英·佛·캐나다는 물론 印尼·臺灣같은데가도 훌륭한 전쟁박물관 또는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北傀도 이미 휴전직후부터 소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부지5만평·건평1만5천여평)을 平壤에 마련、그들의 敗戰을 호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대로다。

이제 더이상 政府당국은 戰爭기념박물관을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계제라 하겠다。76년이래 지지부진상태를 면치못하고있는 民族박물관 건립계획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성격의 「護國박물관」 같은것을 마련、장차 國防精神의 샘터이자 産室역할을 해가도록해야 한다。

祖國수호의 心性的맥락을 길이 이을 참된 韓國戰爭實史와 그 기념博物館의 創出、이는 새時代의 국민정신·국방의식을 제고시키는 가장 보람찬 사업일것임을 한번더 강조해두련다。

安保와 經協의 연계성
—첫韓美경제협의회서 確認된成果

韓美두나라의 보다次元높은 경제協力을다짐하는 제1次 韓美경제협의회가 2日間(23·24일)의 회의끝에 폐막되었다。

앞서 全대통령의 訪美頂上회담合意에따라 兩國의경제협력문제를 政府間레벨에서 포괄적으로 협의하기위하여 열리게된 이번회의에는 한국측에서 盧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및관계부처실무급대표들이、그리고 미국측에서는 라시시 國務省경제담당次官을 수석으로한 대표들이 참석하여 광범한 문제에 걸쳐 진지한 토의를 거듭、내용적으로 상당한 成果를 올리고 共同발표문을 내면서 끝난것이다。

이번 회의는「協議會」라는 성격그대로 協商結果 얻어지는 그어떤 구체적인 結實은 없었던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제기될것이 예상되는 個別문제들을 보다깊이있게 다루기위해서 貿易·漁業·에너지·企業및投資·科學技術등 5個 實務分科委를 설치 운영키로 하였음은 注目할만한 成果라고 하겠다。그러니까 每年한차례 열리는 한미경제협의회만으로는 개별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合同실무분과위원회로하여금 필요할때마다 分委회의를 갖게한것이며 그활동사항을 本협의회에 報告토록 만들고있다。

이렇듯 1차 협의회에서는 비록 미국의 對韓輸入규제완화같은 個別문제에대한 妥結이나 合意같은것은 없었다 하여도 한국의 安保와 관련해서 그바탕을 이루게될 한국경제의 안정發展이 切實하다는것과 이것이 한미 두나라의 국가적 또는 경제적 相互利益에도 이바지될것임을 再確認한사실은 높이 評價할만하다。

특히 우리側에서 제기된바 경제협의회가 단순한 경제협의에 그쳐서는 不可하다는 이른바 「연계이론」을 미국側에서 受諾함으로써 앞으로 한미두나라 경제협력관계의 基本方向을 定立할수있게되었음은 더욱뜻깊은일이라고하겠다。

바꾸어말하면 同협의회는 경제문제에 局限된 좁은視野를 벗어나 兩國間의 경제적 安保的利益을 상호연계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것이다。

한국이 GNP 6%에 달하는 힘에겨운 防衛負擔을 감당함으로써 東北亞의 安定뿐만이 아니라 美國의 국가이익에도 기여하고있다는 엄연한사실인식에 입각해서 한국이 自主的인 국방능력을 培養하고 경제自立을 달성할때까지 경제적支援面에서특별배려가있어야한다는데 뜻을같이하고있다。

이는 동협의회가 종전의 類似협의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특징을 나타내는것으로 매우 중요시해야할대목이다。

왜냐하면 國家間경제協力이란 本質的으로 따지고볼때 安保를 포함하는 政治·外交·軍事的인 협력관계 까지를 포괄해야마땅한 것으로서 이같은 背景要件들을 無視한 이른바 순수한 경제협력이란 永續할수 없다고보기때문이다。이러한視角에서생각하면 이제까지 한국은 지나치게 過小評價되거나 아니면 寄與度에 相應할만한 反對給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음을 지적치 않을수 없다。

경제協力이라는 名分에 구애되어 보다 높은 次元에서의 국가적 相互利益이 無視되는 경우조차 없지아니하였다。흔히 경제至上主義를 내걸고 경제적利益만을 따로 떼어서 논의하자고하는側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國家間경제협력관계에 있어서는 安當치 않다고 보겠다。만약 경제적利益만을 따질때엔 미국의 安保등 국가利益에 별로 기여하는게없는 日本같은 경제富國만이 미국의 특별배려를 享有하게되는 엄청난 非理를 結果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한미두나라의 경제협력관계는 국가적利益과 경제적 利益이 서로 균형과 調和를 이룰수 있는 方向에서 적극적인 발전책이 모색되기를 바랄뿐이다。

公職者倫理法案 많은問題點보완
8월에修正案마련

內務委 審査小委

국회 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案 심사 6人小委의 柳尙昊위원장은 정부原案을 보완한 小委案을 정기국회 이전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柳위원장은 25일『이틀간의 공개간담회에서 정부案의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발표자들도 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는 修正案을 내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등록대상자의 범위▲등록기준▲등록 재산의 공개여부등에 관해 의견발표자들간에도 견해가 엇갈린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小委는 각계의견을 더들어 … 柳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法의 실시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이法을 제정실시함으로써 생기는 副作用도있지만 그보다는 부패방지에 있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측면에서 수정 補完하여 실시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印尼 막강한 資源保有國
對韓 長期的공급방안 집중협의

全斗煥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방문은 아세안歷程의 첫 방문국이자 이나라가 이번巡訪의 실질적인 호스트국가라는 사실에 비추어 막중한 의미를 갖는다。

全대통령은 3泊4일간의 인도네시아 체류기간동안 수하르토 대통령과 2차례의 頂上회담을 갖는 이외에 3차례에 걸쳐 交驩하며 이러한 일련의 對坐를 통해 韓·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과 아세안 5개국간의 집중적인 협력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韓·인도네시아 양국문제에 관한한 외교소식통들이 지적하는 주요의제는▲현재 8억달러線에 이르는 양국간 交易量을 대폭 늘리고▲양국간의 기술 경제교류를 더욱증진하며▲석유·석탄·목재등 인도네시아産자원의 장기적인 對韓공급방안▲한국건설·기술陣의 대폭참여등이 꼽히고있다。그러나 全대통령의 이번 印尼방문은 국가원수의 공식방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국가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러한「신뢰강화」의 바탕위에서 각분야에 걸쳐 협력증진이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는 東南亞유일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이자 非동맹세력의 창설멤버이다。또 1억4천에 달하는 인구는 세계5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석유이외에도 무진장한 석탄·원목·주석등 아시아에서도 中共다음가는「무서운」資源보유국이다。

또 아세안 5개국가운데서도 국방·자원·외교면에서 가장 막강한 리딩국가라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이번 韓·印尼정상회담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이 어떠하리란것을 짐작케하고도 남는다。

全大統領 出國성명(要旨)

인도네시아到着성명(全文)

유럽銀行 償還지연
北韓、日債務 충실履行
對日에적극接近

【홍콩24日=聯合】北韓은 西方차관의 외면을 받는일이 있더라도 일본과의 경제협력강화를 적극 추진하려는것으로 보인다고 24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紙가 보도했다。

요르단 알룩大總長 아드난씨 명예哲博

北韓 崔德新 아첨發言
"北은 世上의 낙원"

6·25맞아煽動집회

국제輿論 誤導겨냥
외교부、備忘錄발표

人事異動

本社來訪

政局往來

國會에도 좁은門… 常委 海外여행 競合 2대1

뉴TV한국프로 렌트 아씨 일

이곳 카나다 토론토 선미광고에서는 국내방송관계 기관및 비디오업계의 협찬으로 전 미주지역에 최다수의 필림을 가지고 멀어져간 우리들의 전통과 예술、연극은 물론 우리언어를 배우는 2세를 위한 프로그람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저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표 구본무

● 국내연예프로(교육 및 언어) ● 국외연예프로(한국어)

전설의 고향
학녀, 상풍지도, 정승볼 대감, 조강지처

T. V. 문학관
땟따라기, 청산별, 삼포로 가는길, 모밀꽃 필무렵

영화
앞개전, 낙도 무지개, 이소령의 전설, 여인와 타국, 사랑의 계절, 돌아온 미소 봉십호, 암행어사, 사랑

일요 드라마
불어라 봄바람, 유모어 극장, 부부 소망, 한국의 미, 우리들의 광장, 일요 토론, 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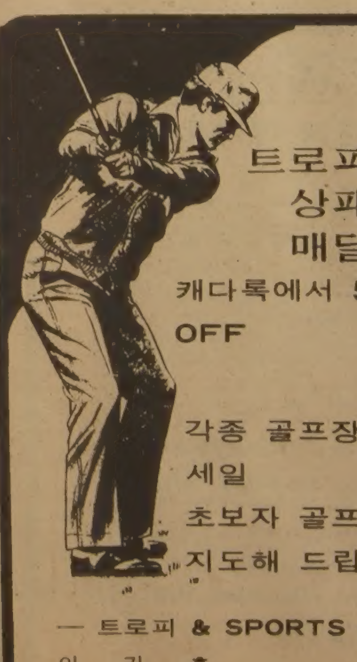
어린이 프로
만화 홍산, 고양이와 생쥐, 15소년의 표류기, 우주 전함 태극호, 모험 소년, 우주전함

백분 쇼 5편:
5천만의 대행진 5편
젊음의 행진
추적
고향이 부르는 소리 여울의 소리 얼어붙은 강

- 닥터 지바고‥상하 4시간
- 배미쎄라블 상하 4시간
- 죽음의 조수
- 리틀 다아링
- 록키
- 베트린 위기의 탈출
- 디어 헌터‥상하 4시간
- 산사인
- 티파니에서 아침을
- 유리아나의 기적
- 카우 보이
- 소문난 형사
- 꿈나라
- 타잔
- OK 목장의 결투
- 포세이돈 아더벤처
- 80일간의 세계일주
- 시실리안
- 독수리 작전
- 마딩의 복수
- 리오의 사나이
- 마징가 젯트(어린이용)
- 얼지 공주(어린이용)
- 미녀와 점보원
- 전쟁과 애욕
- 집없는 천사
- 차이나 걸
- 600만불의 사나이
- 형제
- 형사
- 마야의 전설
- 세계의 서커스
- 피서지에서 생긴일
- 네바다 스미스
- 리오라보
- 화이팅
- 7인의 신부
- 회와 벌‥상하 4시간
- 007
- 록선명과 박보회 총재의 증언

MTV CH 47에서 방영된 연예프로 다수

善美廣告 454 x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B. 416-531 6430 R. 416-746 3712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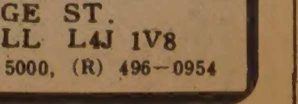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現세계 秩序는 「大虐殺」

노벨賞受賞者53명 선언문 발표

″수천萬명 餓死로위협″

貧民에 ″法律不服″을촉구

【제네바(스위스)24日AP=聯】 과학 문학 평화등 각분야의 노벨상수상자 53명은 24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대규모 餓死로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면서 세계빈민들에게 기본인권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 대한 不服운동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숀·맥브라이드, 아돌포·페레즈 에스키벨등 평화상수상자를 포함한 이들 노벨상수상자들은 이날 제네바와 로마·브뤼셀·본·파리·오타와·뉴욕등 세계7대도시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 정치 경제무질서 때문에 수천만명이 기아로 사망할 위험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문은 「善意를 가진 모든 사람과 정부 그리고 권력자들」은 세계의 「천민층」과 함께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미명아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잔인하고 메마른 유토피어를 번복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선언문은 만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인권이외의 모든 법에 불복하며 약자들이 조직화하여 비폭력의 조직된 힘을 사용한다면 이같은 재난은 우리의 당대에 종식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문은 前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드루딘·아가·칸公과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장인 스리랑카의 가마니·코레아에 의해 발표되었다.

◇佛, 閣僚회의후 기념촬영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일부 각료들이 24일 각료회의가 끝난후 엘리제宮 계단에서 기념촬영을했다。앞줄 좌로부터 모르와수상, 미테랑 대통령, 드페르내상, 공산당부위원장인 피테르망 운수상, 세벤느망연구기술상. 【파리24일 AP聯=聯】

佛공산당 入閣…비밀누설 가능성에

″祖國에忠誠心…의심 禁物″

피테르망 運輸相 회견

【파리24日AP=聯】 프랑스 공산당각료중 한사람인 샤를·피테르망 운수상은 24일 프랑스 국영제2TV와의 회견을 통해 共産黨의 입각으로 蘇聯이 프랑스 기밀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는 주장에 모욕을 느낀다고 말하고 누구도 프랑스에 대한 공산당 각료들의 충성심을 의심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자 프랑스 공산당의 제2인자가 된 피테르망 운수상은 이날 다른 3명의 공산당 각료와 함께 TV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공산당이 파견한 대표가 아니며 프랑스 헌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지난21일 공산당각료가 탄생할 경우 蘇聯은 프랑스국가비밀에 보다 쉽게 접근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프랑스보수정치인들도 비밀누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24일 共産黨각료 4명이 포함된 새내각이 구성된후 첫 閣議를 주재하고 ...

이란 새大統領 선거

7월24일에 實施

라자이首相 出馬선언

【베이루트(레바논)24日AP=聯】 이란정부는 반혁명혐의로 재임 17개월만에 해임된 바니·사드르전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기위한 새 대통령의 선거를 7월24일 실시한다고 이란 최고통치기구인 3人대통령위원회가 24일 발표했다.

대통령위원회의 이같은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테헤란 집권 회교공화당의 당수이며 3人 대통령위원회 대표격인 ...

아프간叛軍 최대의 接戰

首都부근서 蘇·政府軍과

【뉴델리24日UPI=聯】 아프간 회교반군들은 최근 아프간정부군 및 蘇聯점령군과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래 수도부근에서 최대의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소련군은 이 전투에서 헬기와 화학무기를 동원, 독가스를 공중살포했다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이 24일 밝혔다.

79년 소련군이 아프간에 무력개입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19일 수도 카불에서 정부군전차 3대를 파괴했으며 ...

이란, 라프산자니에 강력한 權力부여

【알카라25日UPI=聯】 ...

華國鋒과오 文書化

中共 共產黨創黨 60周年맞아

【홍콩24日=聯】 ...

콜럼비아號 來9월30일 2차로飛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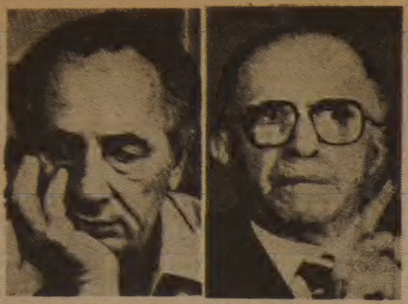
【코코아비치(美플로리다州)24日AP=聯】 ...

核兵器 다른배옮겨 요꼬스까歸港 직전 미드웨이號

【東京25日=聯】 ...

이스라엘王 베긴 再選확실

30일總選 페레스 바짝追擊불구


◇페레스노동당수 ◇베긴 수상

「原子爐 폭격」…人氣 급상승

″選擧이용″ 일부선 非難도

과반議席 힘들어 聯政 불가피

오는30일 총선거를 실시하게될 이스라엘에서는 선거전 초반에 들어서면서 집권 리쿠드黨의 베긴수상과 노동당의 페레스당수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

【崔秉燮기자】

인 사이드

에이레系 美國人은 괴롭다

同胞에의 支援여부 망서려

″샌즈獄死는 祖國의悲劇″

美에 IRA支部만들어

過激派선、武力지원계획도

◇뉴욕의 영국대사관 앞에서 보비·샌즈 의원의 獄死를 규탄하는 한 에이레系 미국인.

【李炳圭기자】

인 사이드

쌍방이 內憂外患 시련에

잊혀져가는 이란·이라크戰爭

◇전선을 시찰하던 바니사드르。그가 해임되자 이라크는 이란군의 사기가 떨어질것으로 예상, 공세를 격화시키고있다.

이란 強硬派집권…督戰가능

이라크 지루한싸움…不滿싹터

戰爭小康상태…石油輸出은 재개

【카스르에시린(이라크접경이란령)AP=聯】 ...

메아리

선택 없는 愛煙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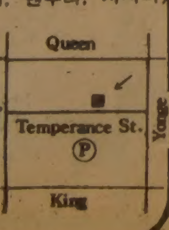
STORE HOURS
평 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 ~ 2 : 30PM
5 : 00PM ~ 11 : 00PM
토요일 :
5 : 00PM ~ 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전화 : 597-1255~6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SEA KING RESTAURANT

유명한 바다요리, 맛있는 중국요리
한국분들이 매우 즐길 수 있는 게요리, 가재미찜, 천엽요리, 잡채등을 항상 마련하고 있아오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3-135 DUNDAS ST. W. TOR.
☎ : 977-3441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 —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精薄兒교육에 앞장선 대학생들

9개大 40여명모여 奉仕클럽 조직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아 서울의 9개대학 대학생 40여명이 모여 장애 어린이를 돕는 자선봉사단체를 결성했다. 高大·梨大·건국대·단국대·국민대·홍익대·상명여사대·한국신학대·한양대생들이 지난18일 홍대「영원한 미소」앞에 모여 조직한 이 심신장애자 돕기 봉사클럽은 조용히 그들의 뜻을 펼쳐간다는 취지에서 이름도 짓지않은 無名클럽이다.

◇장애학생들의 수업을 맡고있는 대학생 봉사자들. 더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훈련원강사로 1명씩맡아 지도

8월중에 장애아作品展도 준비

이 클럽 회장 李明九군(서울신학대3년)은『세계장애자의 해를맞아 요즘 각 사회단체들이 활발한장애사업을 펼치고있지만 일시적이고겉치레적인것도많은것같다. 우리대학생들은 실제로 장애아들과 호흡하면서 內實있는 사업을펼치고싶다』고 말한다.

이들이 실제로 정박아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편것은 79년3월 조각가 朴贊甲씨(41)가 심신장애자를 위한 청소년근로문제연구소부설 직업훈련원을 세우면서부터. 맨처음회원인 朴英勳군(홍익대도안과3학년)과 高愛姬양(단국대특수교육과3학년)이 신문에서 朴씨의 기사를읽고 찾아가 훈련원 일을돕기시작했다.

『그 당시만해도 정박아들을 위한 사회의 반응이 너무 냉담해서 제가 뇌성마비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친다니까 모두들말렸정도였읍니다』朴군과 高양은 자신을 만류하던 친구들을 하나 둘씩 데려와 실제교육과정을 보게한뒤 이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곤했다.

이렇게 모인 회원이 현재 4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장애어린이를 1명씩 맡아서 교육을 담당하고있다.

朴贊甲씨는『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아를위한 특수학교나 훈련원 가운데 교사들이 전원 대학생봉사자들로 이루어진곳은 이곳뿐』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지금은 정박아·뇌성마비아훈련을 학생들이 모두 담당하고있다.

이들이 가르치는 교과목을보면 목공예 조각 부조등 취업을위한 직업교육과 국민학교수준의 국어 자연 산수 도덕 음악 태권도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회장 강은주양(高大 심리학과3)은『전부 대학생들이기때문에 방학때를 제외하곤 학교강의시간에 쫓겨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얻는 보람과 기쁨은 말할수 없을정도』라고 털어놓는다.

젊은이

이들은 오는 7월 지난3년간의 체험을 각자의 수필과 심신장애자들에 대한 연구논문등을모아「봉수대」란 조그마한 책자로펴낼계획.

또한 8월에는 작년에이어 두번째로 전국심신장애자 작품전을준비중인데 특히 올해에는 미술작품 외에도 詩·수기등을 모집해서 다채로운 작품전을 열예정이다.

이 클럽은 방학중엔 지방 특수학교도찾아가 도울예정인데 활발한 대학생봉사운동을 펼치기위해 이운동에 뜻을둔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전화☎6950

옥스퍼드에서의 困辱

나의 이력서

<題字 玄信圭>

玄信圭 ㊻

56년7월, 대전후 처음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열린 IUFRO(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회) 회의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54년의 첫 유럽방문등에 IUFRO를 소개받고 가입했었기 때문에 이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옥스퍼드에 들어서자 농무와 석탄그을음으로 공기가 칙칙하여 가슴이 답답해왔다. 건물들까지도 우중충했다. 어느 핸가 이곳 주민 5천명이 기관지염으로 숨졌다는 기록이 실감났다.

英林業연구관會議서 育種상황 발표

12세기에 세운 학교라는 옥스퍼드대학석조건물의 풍화가 이학교의 역사를 대신설명해주고 있었다. 이대학엔 교실이 따로없고 학생과 교수가 기숙사에서 동거동숙, 인격對인격의 교육을 하고있다고했다. 대강당에 학생을 몰아넣는 量産교육이 아니었다. 이 교육방법이 옥스퍼드대학을 세계의 대학으로 키운 창설이념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부러운 학교였다.

회의에는 내가 파리에서 이미 교분을맺은 덴마크의 사라하·라르센박사등 대가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나는 한국의 임목육종을 발표, 리기테다 대량생산의 실적에 대해 극찬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학자들과 친교의 폭을 넓힐기회를 얻었다.

학자들은 일천한 독립국이 그만한 일을 해내고 있는데대해 찬사를 아끼지않았으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나는 내심으로 어깨를으쓱, 한분야에서나마 한국의 실력을 과시했다싶어 잠시흐뭇한 감상에 젖어봤다.

그러나 그날밤 나는 작은 실수를 범했다. 굳이 실수랄것은 아니지만 결코 자랑은 못되는 에피소드를 남겼다.

회의가 끝나는 날의 밤, 옥스퍼드 임과대학장인 챔피언경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초대장에는 집의 약도가 그려져있었다. 동양인으로서 唯二하게 두사람인 나와 日本의 大政正雄이 함께 호텔에앉아 우리를 데리러 올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차는 오지않았다.

우리는 초대장을 다시 펴보고서야 약도가 스스로 찾아오라는 뜻이었음을 깨달았다. 약도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놓이는 걷기시작했다. 나는 마침 새 구두를 신고 있어서 15리쯤 걷는데 발뒤꿈치는 벗겨지고 다리는 절었다. 도착하니 밤9시가 넘어 파티는 무르익어 있었다. 왜늦었느냐는 초청자의 물음에 비웃을 말은『차를 안보내 줘서 걸어오느라 그랬다』고 원망을섞어 대꾸했다. 그밤은 끼니도 걸렀다.

단체로 초대할때는 개인초대때와 같이 차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예법을 몰랐기때문에 촌사람 행세를 하고만셈이다.

마침 그의 집에는 한국의 옛농이 놓여있어서 내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떤것이냐 했더니『당신네나라에서 온 것인데 우리집 가보다』고 했다.

영국인들은 식민지에서 여러가지 귀한것들을 많이가져갔는데 우리나라것도 그랬구나. 다음날 박물관에 들러 한국관을보면서 나는 더욱 놀랐다. 고려자기류를 비롯하여 장에 가득한 한국의 유물중엔 신라시대의 유리구슬도 진열되어있었다. 1천2백여년전 신라것이라는 설명이 버젓이 붙어있었다. 한편 분하고 한편 괘씸했다.

◇美플라서빌 삼림유전연구소에서 친교를 맺은 미로프박사와 함께. 미로프박사는 러시아출신으로 61년 水原연구소로 筆者를 찾아와 우의를 두터이했다.

會議후 團體초청… 車기다리다 늦어 촌사람행세

다음날 회의에 참가했던 학자들 일행은 스코틀랜드 조림지를 시찰했다. 이곳에서는 역시 기술과 투자가 조화된 조림을 하고있었다. 독도 서독이지만 규모있게 조림을 하고있는나라는 과연 영국이었다.

영국은 1차대전이전에 樹海를 이루었던 赤松을 베어내 製鐵用 製錬에 사용했고 벌채지는 목장으로 일궈 양을쳤다. 赤松炭은 구멍이 송송하여 제련에 최적의연료였다. 그러나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목재자원의 부족으로 고전을했다. 목재에 굶주린 영국은 서둘러 아껴 기른 삼림을 잘라가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失策을 인정하고 그땅에 다시 계획조림을 시작했던 것이다. 바쁘다고 무작정 서두르지는 않았다. 정부가 한해에 5~6만정보씩 목장을 사들이고 주택 교회 학교등 생활권을 형성한 삼림부락을 만들어 교육받은 노동력을 이주시켰다. 따라서 이들 훈련공으로 하여금 조림케하니 성공률은 거의 완벽했다. 양에다 치중하지않고 해마다 조금씩 질에 초점을 두었다. 잔벌까지도 학술적인연구와 실험을 거친후 실시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조림되고 육림된 赤松이 층층이 美林을 이뤄가고 있었다.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보며 나는 또한번 부끄러움을 느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될까, 감탄에 앞서 분통이 터졌다.

◇6·25 31주년을 맞아 국립묘지를 참배하러온 소마국교 어린이들과 이를 주선한 李貴玉씨 (맨 왼쪽).

落島어린이 17명 국립墓地 참배길

한 원호가족의 篤志 열매맺어

낙도어린이17명이 한 젊은이의노력으로 서울 나들이를 했다. 全南 珍島郡 鳥島면小馬국민학교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서울여행을 한것은『국립묘지를 꼭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이들의 소원을전해들은 한 원호가족 李貴玉씨(25·회사원)가 자신의 박봉과 열쇠고리를 만들어판 수입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2일 상오9시10분 꿈을한아름씩 안고 국립묘지를 참배한 어린이들은『책에서만본 국립묘지에 직접와보니 선열들의뜻을 더욱깊이 새기게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선군(13·소마국교6학년)은『나라를 위해 목숨을바친 애국선열들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다. 우리가 열심히공부해야만 나라를위한 훌륭한 국민이될수있다는걸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어린이들이 다니는 소마국민학교는 우리나라 西海의 최남단 珍島郡小馬島에 있는 전교생 50여명의외딴섬학교. 너무 외져있어 그흔한 TV도 볼수없는 곳인데 이곳 어린이들은 해마다 6·25가되면 많은사람들이 국립묘지를 참배한다는것을 책에서 읽고 작년6월 국립묘지참배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경비등 여러가지사정으로 계획은 이루어지지못했고 작년말 軍에서 제대한후 고향 珍島에들렀던 李貴玉씨가 이 소식을 전해듣게되었다.『제가 원호가족이기때문에 그애길들은순간 코가 찡해왔읍니다. 곧바로 진도군 교육청에 가서 돈을마련해서 아이들의 서울방문을 주선하겠다고 말했지요』

李씨의 아버지 李正培씨(48)는 6·25때 적과 대전중 총탄을 맞아 한쪽다리를 저는 상이용사. 현재 성수동의 셋방에서 직장에 다니는 李씨는 동생과 자취하고 있는데 섬어린이들의 서울 방문을 위해 월17만원의 급료중 10만원씩을 저축하고 퇴근시간이후 열쇠고리 1천개를 팔아 모은 1백30만원으로 어린이들의 국립묘지 참배를 실현시켰다. 【鄭成子기자】

뒷골목의 隱語는 庶民의 목소리죠

「꼬방동네 사람들」著者 李東哲씨

大學街의 유행 반가운 일

◇李東哲씨

인터뷰

최근들어 대학가에는 뒷골목의 은어들이 부쩍 유행하고있다. 대학가에 은어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요즘의 은어는 씽끄(형무소)、곱(형사)등 뒷골목냄새를 물씬풍기는 원색적인 것들이라는 점이 재미있다.

대학가에 이처럼「뒷골목 문화」를 유행시킨것은 지난해 5월 호암社가 펴낸 수기소설「어둠의 자식들」때문이라는것이 정설이다.

이책은 소년원과 형무소와 창녀촌에서 살아오다 기독교인이된 李東哲씨(36·서울道峰區雙門洞1268의445)가 자신의 지나온 생애에 관해 구술한것을 작가黃晳暎씨가 정리한 것이었다.

이책은 요즘같은 극심한불황속에서도 12만부가 나갔는데, 최근에는 주인공인 李씨 자신이「어둠의…」의 속편에 해당하는「꼬방동네 사람들」을 직접 저술해냄으로써 화제를 더해주고있다.

이책은 李씨가 기독교신자로「새사람」이 되고 결혼도 한후의 생활과 빈민가의 실상을 그려낸것으로 초판 5천부가 이틀만에 매진되는 호조를 보이고있다.

「어둠의 자식들」의 맨첫머리에서「나는 소설이나 책에관해서는 X도 모른다」고 했던 이 국민학교중퇴생은 예기치않은 베스트셀러작가가 됨으로써「거름 난다」는 말을 실감케한다.

『대학가에서 뒷골목의 은어가 유행한다는 말에 반가움을 금할수없었읍니다. 그것은 대학가의「타락」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빈민들의 실상을 보였음을 의미하는것이니까요』 말문을 열자 정연한 이론지요』

『책을내어 매스컴의 각광을 받는 이들「유명인사」같이 됐지만 저의고향(꼬방동네)을 떠나지않기위해 스스로를 다짐하고있지요. 기회가 있으면 기독교의 실상을 파헤치고 비판한 책도 내놓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참으로 사랑하기때문이죠』

으로 성경을 보는가하면 뒷골목의 비행을 청산하려하고 있다고 그는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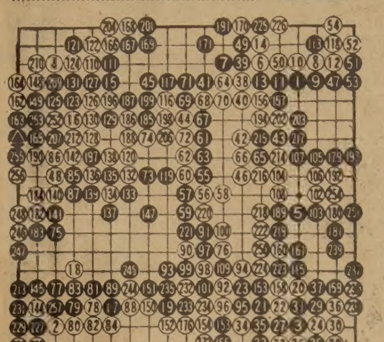
경기도 抱川郡蘇屹面이 본적인 李씨는 어려서 행상인 편모와 기지촌부근에서 살았으며 5세때는 경찰에 갇혀 을살아 지금도 왼쪽다리를 절고있다.

극도의 가난과 급우들의놀림으로 국민학교를 6학년에서 중퇴한 그는 가출하여 청량리, 창신동, 양동의 사창가와 형무소에서만 살아왔다. 그러다 73년 許炳燮목사(41·下月谷洞 東月교회)를만나 기독교신자가 되고서 부터「變身」이 시작됐다.

그는 이 장사에서 모은 돈과 인세수입등으로「어린이집」을 지어 판자촌의 어린이들에게 놀이터와공부방을 마련해줄 꿈에부풀어 있다. 【李】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總譜 259手完 白5집반勝 (각5시간 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1勝〉

黑(名 人) 曺薰鉉〈1敗〉

도전자 執白先勝

우변을白192로 막은데서 큰끝내기는 없어지고 나머지는 승부에 무관한잔끝내기인데도 名人과 도전자는 60여수를 더두었다. 심지어 반집패도 양보를 안하고 필사적으로 다투었으나 그저 그뿐, 黑은 결국 덤만큼 패했다.

이리하여 도전자는 첫판을 執白勝, 유리한 고지에 선착한것이다. 執白勝이라니 말이지 전날 한때 이들은 黑番必勝의 신화적、징크스로 유명했는데 요즘와서 오히려 白으로 이기는 경향이 많아졌다.

엄격히 따지면 덤5집반의 바둑은 白이 유리하다고까지 말하고있다. 그렇더라도 역시 다음에 黑을 갖게된 도전자가 첫판을 이긴 기세로 밀어붙일가망이 많지않느냐고 성급한 편들은지레 도전자의 편을 들고있지만 어떨는지.

이바둑은 한말로 해서 黑이 당한것은 의 착각으로 고전에 빠진 케이스라하겠다. 착각이란 다른것이 아니라 黑55에하의 작전에서 白64의 奇手를 읽지않은 黑61、63의 경솔한수이다. 만약 白64를 예기했더라면 黑61은 白62자리를 몰아서 또다른양상이 벌어졌을 터이지만 어쨌건 이와같이 白72까지로 기둥말인 黑4점을 잃지는 않았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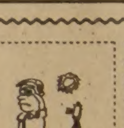
그뒤 黑은 갑연히 분발、77이하 79까지、새영토를 개척하여「黑유망」의 설이 나돌았는데 갑자기 黑101로 패를걸어온바람에 우변을 白102이하로 파괴당했다. 끝으로 黑137을 14의 2쪽으로 밀어붙일 시기마저 잃어서는 만사휴의였다.

112…98。114…10。143…135。146…134。195…135。200…136。205…197。208…136。211…197。240…136。243…197。249…136。258…101。259…1。▲이음。소비시간 白=4:15。黑=4:45。【一九】

現代人의 健康百科 〈148〉

眼瞼內反症

햇볕에 눈부셔…角膜炎등 유발도



안검내반이란 글자그대로 눈꺼풀이 정상인과는 달리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눈꺼풀이 안쪽으로 심하게 말려들어가게 되면 자연 속눈썹이 검은자위(角膜)를 찔러 결국 각막에 炎症을일으킨다. 이렇게되면 표층성각막염, 각막미란, 각막궤양 및 각막 신생혈관 따위가 생길수 있는데 이런 각막염이 나타나게 되면 환자는 눈을 자주 비비게되고, 눈물을흘리고 充血이 되고, 햇볕을보면 눈이 부셔 한다. 그래서 屋外사물을 찌푸릴때마다 햇볕때문에 눈을 감는 습관을 갖게도 된다.

이같은 안검내반증은 원인에 따라 안륜근의경련으로 일어나는 경련성 안검내반증, 화상과 트라코마후에 나타나는 瘢痕性 內反症을비롯, 노인성內反과 피부性內反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와같은 동양인에게 흔한것은 이중 피부性內反症이다.

피부성내반증은 아래눈꺼풀 內側에 잘생기며 皮下脂肪이 많을때 특히 문제가된다. 이는 대개 先天性으로 오지만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저절로교정 될수도 있다.

증세가심한 眼瞼內反인때에는 으레 角膜瘍害가 생기게 되며 이런환자는 치료를 받아야한다. 임시로 스카치 테이프나 반창고 따위로 눈꺼풀이 밖으로 나오도록 붙여 교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일뿐 영구적인 치료는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린 나이(2세이하)에 안검내반을 수술로 교정하는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안검내반증과 비슷한 것으로 睫毛亂生이라는 눈병이있다. 이는 속눈썹의 일부가 안쪽방향으로 자란 눈이다. 다시말해서 속눈썹 배열이 고르게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멋대로 亂生한 상태를말한다. 이같은 증세는 때로는 안검내반증과 겸하는 수도 있다.

원인은 눈꺼풀의 화상과 화학상, 안검염, 트라코마등이 있어 안검과 결막에 반흔이 생겨 발생하게된다. 그래서 이들 증세는 어른에게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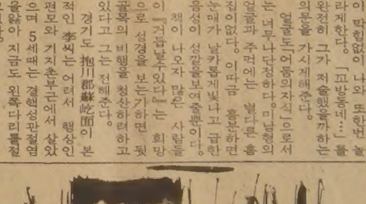
안쪽으로 자란 속눈썹을 핀셋트로 뽑아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치료법에 그친다. 속눈썹이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안검내반때와 같다.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잘못 나온 속눈썹 뿌리에 電氣소작바늘을 넣어 소작시켜 뿌리째 뽑아 버리는 수술을 하는 일이다.

金在浩【醫博·가톨릭醫大 江南성모병원안과장】

모눈종이 위에

趙善作 作 /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㊶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술이 심해지셨다는 은애의 전갈을 받고 나는 부랴부랴 귀가하는 중이었고, 그녀는 마악 외출 채비를 하고 나서는 참이었다. 문간에서 그녀와 나는 눈부터 마주쳤는데, 그녀가 그 여자라는 것을 깨달은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먼저 시선을 피한 것도 나였다. 혹시 그녀가 나를 알아볼는지도 모른다는 느낌 때문에 나는 꽤 당황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알아볼까닭은 없었다. 그녀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했었던 유성의 한 삼척에서도 나는 그녀가 나를 잘 볼수 없도록 챙이 넓은 캡아래로 얼굴을 감추고 있었으며, 나만이 비밀한시선을 굴려 그녀를 관찰했던 것이다.

그녀는 조금 웃는 듯한 자연스런 표정으로 나를 지나쳤다. 그녀가 대문을 나간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대문을 나가자 그녀는 조금 뛰듯이 절었다. 굽이 높은 샌들로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그녀의 각선은 나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킬만큼 아름다웠다. 내가 들어서는 기척을 눈치챈 은애가 가까이 오기까지 나는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게 가까이 오며 은애가『형님 오셨어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나는 대꾸도 못했고、은애가 또『무얼 그렇게 보세요?』하고 목을 돌아 내시선을 따라 그녀를 보고는『저 이쁘죠?』하고 말해서야 나는 비로소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응? 그래 예뻐』 건성으로 대답하고 나서 나는 마루로 가며『은애 친구야? 저 방에 세든?』하고물었다.

『어머、처음 보셨어요?』

『그래.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너무 짙은 관심을 보였다가는 어떻게 빠져들지 모르겠다 싶어 일단 나는 어머니 쪽으로 화제를 바꾸었다. 어머니께서는 서교동에 가셨다는 대답이었다. 서교동친척구들이 모두 연포로 피서여행을 떠나는데 준비를 돕는다면서 가셨다는 것이었다.

『형이 언제때 이제사…』하고 내가 어머니의 딱한 정경을 떠올리며 말하자 은애는『아버님 휴가가 너무 늦게 나와서 할수 없이 그렇게됐대요. 아이들이 조르니까 안갈수는 없고…』하고 변명했다. 그렇다가는 내 불평이 그런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닫자 은애는 좀 송구스런 표정으로 덧붙였다.

『당신께서 즐겨서 찾아다니시는 일이라 만류하기도 좀 뭐해요』

얼마 전 내가 어머니께『서교동에 자주 찾아다니지 마세요、구질구질하게. 밖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시던가 그럴 일이지、엄마가 뭐 그 집 시어머니유、친정 어머니유?』하고 짜증부리던 말을 은애도 곁에서 들었던 것이다.

서교동에 드나들기 시작하신 다음 잠깐 잊으신 듯했던 술버릇이 되살아나신것은 어머니께 부대도 그 집이 어머니께 가는 곳이지 심리적인 피해 때문일 거라고 나는 판단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서교동에만 다녀오셨다 싶으면 소주라도 두어 병 마셔야 잠드시곤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그런 빈도가 부쩍 잦아져서 지난 밤에는 흠씬 취하셔서 엉엉 우시기까지 했다고 아침에 은애가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어머니에 관해 은애와 나는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내 의식은 아까 문간에서 마주쳤던 그녀만을 쫓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적(敵)과 마주쳤다는 느낌이었는데、그녀에 관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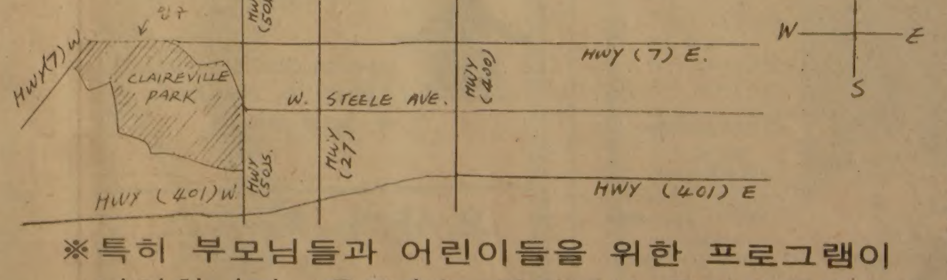
653A BLOOR ST. W.

☎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침

야유회초대합니다

향우 여러분, 바쁘신 이민생활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본회에서는 다양한 프로를 마련하고,
향우 여러분과 가족들이 한데모여
심금을 털어놓고 하루를 즐기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참석을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음료수는 본회에서 준비하겠읍니다.

일 시 : 1981년7월11일(토)
시 간 : 오전11시
장 소 : CLAIREVILLE CONSERVATION PARK

문의처 : 532-2727 장 순 채
535-4000 박 주 삼
964-2702 이 상 구

호남향우회회장 배

오는觀光客「消化불량」

國際관광公社 好況에도 채비불충분

直營호텔 거의가赤字…운영난

普文·中文團地 民間투자기피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다시 몰려들기 시작, 사상 최고기록까지 올리고 있어 모처럼의 기회가 와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소화해야할「관광한국」의 채비가 미흡하다. 관광의진, 홍보, 관광자원의 개발을 주임무로하는 국제관광공사의경우 관광불황기였던금년초부터 관계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고호황기로 접어드는 요즘에와서도 같은지적을 받고있다.

관계자들은 관광공사가▲과거 장기간에걸쳐 채산성을 잃은 투자집행을해와 이제재투자할 재원이달리고 ▲해외선전사무소와 대행소의 예산배정이 충분치못해 관광객유치기능이 미약하며 ▲慶州普門과 濟州 中文등에벌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가의 기피로 당초기대했던 투자효과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지적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기능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있다.

25일 교통부에따르면 국제관광공사가 지난62년6월 설립된이래 그동안 직접투자한 자산은 조선호텔, 慶州개발공사, 慶州조선호텔, 뉴설악호텔, 扶餘유드호스텔, 釜山관광호텔, 해운대비치호텔, 대한여행사, 濟州관광개발공사, 내장산관광호텔등 모두 10개 관광회사에 1백38억7천1백여만원 (평균주식지분율55.6%)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호텔및회사들중 9할가까이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것.

따라서 관광공사측은 대안으로 새관광단지의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慶州조선호텔, 뉴설악호텔, 扶餘유드호스텔, 금오산관광호텔, 해운대비치호텔등 5개 회사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가 대부분 적자업소여서 주식의 매각이 어려운 형편이다. 한관계자는 「이같은사장(死藏)된 투자분을 엄격히 보면 관광공사의 자율적인 투자가 아니라 과거 고위층의 정책적인 지시에 의한것이 많았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관광경기가 계속 호전되어 이들 투자분이 회수되지않고서는 공사의 활동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게될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제관광공사의 12개 해외선전사무소와 6개해외선전대행소의 금년도 현지활동예산은 5억7천만원으로 책정돼 1개선전사무소당 활동비는 월평균 고작2백만원에 불과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수가 없는 형편. 활동비의부족은 결국 해외주재원의 발을 묶어놓는셈이 되어 교통부가 최근 외래관광객 4천20명을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관광공사의 선전사무소를통해 방한하게됐다는 응답은 1.9%에 지나지않았고 관광공사 활동의여파로 볼수있는 외국여행사를통한것이 15.9%, 매스컴을통한것이 1.3%로 이를 모두포함한다해도 19.1%에 지나지않고있다.

이밖에 관광공사가 벌이고 있는 慶州普門, 濟州 中文관광단지는 올해에도 각각4억2천만원, 15억원등 약20억원가까이 투자돼야 하지만 불경기의 여파로 민간인들이 입주를 꺼리고있어 개발사업이 주춤한 상태다.

또 해외선전사무소에 파견되는 간부직원들에대한 처우도 외무부의 서기관급이나 상사주재원보다 뒤떨어지는 수준(부장급월1천5백달러 차장급1천2백달러)으로나타나고있어 3~4년씩 해외근무를하고 본사에돌아온 훈련된 간부직원들의 이직이심심치않게 잇따르고있다고 지적되고있다.

새手法「電氣針」든 覆面강도

쇠파이프電線연결 主婦협박…感電시켜

九老禿山洞…強盜빈발 不安

전기침을든 신형강도가 한달사이에 같은집에 두번들어 집을보던 주부를 지지고 달아났다.

25일 새벽 3시30분께 서울 九老區 禿山4洞 109의10 趙昇洙씨(42) 집 아래층에세든 吳大奎씨(36·S식품사원) 집에 강도가들어 吳씨의 부인 李文子씨(30)를 흉기로 찌르고달아났다.

범인은 이날 길이50cm가량의 쇠파이프에 7cm가량의 대못2개를꽂고 끝에는 길이15cm가량의 전선을연결, 찌르는순간 대못에전기가통해 찔린부위가 타들어가는 신형흉기를 사용했는데 찔린李씨는 왼쪽목에 약1개월간의 가료를요하는 상처를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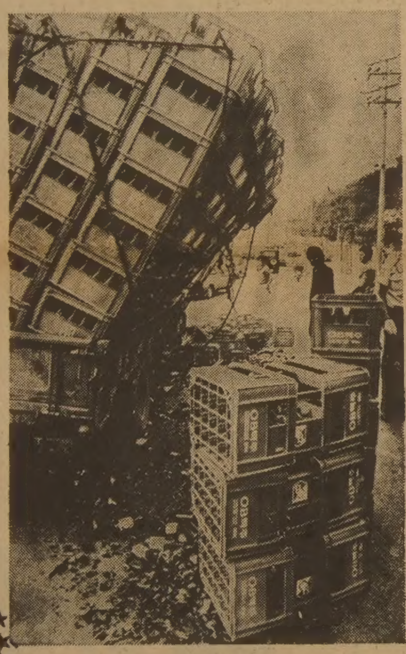
李씨에 의하면 이날 인기척이나 눈을 떠보니 검은 복면을한 20대 괴한이 이 흉기를 들이대고『해치지 않을테니 꼼짝말라. 돈만 가져가면 된다』고 위협, 李씨가 『돈이라고는 화장대위에 2천원밖에 없다』면서 끼고있던 1돈쭝짜리 금반지를빼주자 화를내며 갑자기 李씨의 목을 찌르고 반지와 돈을훔쳐 그대로 달아났다는것.

李씨의 남편 吳씨는 이날 야근으로 집에 없었다.

한편 李씨를 치료한 의사는『전류가 혈관에 직접닿게되는 경우 직사할수도있다』면서『李씨의 상처가 조금만 깊었으면 동맥에 닿았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새벽 4시5분께에는 집주인 趙씨집에 역시 2인조강도가 침입, 안방에서 자고있던 趙씨부부를 위협하고 현금8만7천원등을 털어 달아났다.

이밖에도 趙씨집 부근 동네에는 잦은도난사고가발생, 주민들이 불안해하고있는데 바로 옆집 許모씨집에도 지난1월 도둑이들어 세들어사는 鄭모씨(35)의 금반지10돈중과 현금38만원등 1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달아났었다.



위험한 過積…도로에 맥주병 우르르

◇위험한 과적(過積)이 남긴 사고현장.

25일 상오9시께 서울 龍山區 漢南洞 타워호텔뒤 로터리에서 빈맥주병을 산더미처럼 싣고 달리던 서울8나390 5호 소형트럭(운전사 이영일·29)이 앞에서나오는 차를 피하려다 급정거하는순간 맥주병이 무너져 내려 길한복판을 깨진병으로 메웠다.

이 사고로 차량통행이 1시간동안 혼잡을빚었다.

한보·태평양그룹서 援護성금 각각기탁

한보그룹 鄭泰守회장(사진左)은 25일하오李種浩원호처장을방문, 원호대상자자립을위해 써달라고 1억원을 기탁했다.

태평양그룹 徐成煥회장(사진)도 이날 7천만원을 기탁했다.

太極旗의 卦 청색으로 바꿔야

「最古의 태극기」뜻깊은 還國을 보고

金源模

◇金源模교수

高宗의 외교고문(1886~1890)을 지낸 데니(O.N.Denny;德尼·1838~1900)의 후손인 룰스턴家에서 最古의 태극기를 발견하게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경하해 마지 않는 바이다. 룰스턴씨는 이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原型임을 깨닫고 이를 기증하기로 결정, 그의 아들 부부가 방한, 6월23일 문공부에서 인수식을 통해 대한민국政府에 정식으로 반환함으로써 실로 91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것이다.

데니는 1888년 거투르드·화이트여사와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었다. 1900년 데니死後, 모든 유물과 문서는 화이트여사가 물려받았다. 그런데 화이트여사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포넥타라는 딸하나가 있었다.

화이트여사가 1933년에 별세하자, 그의 손자존·스톨트가 이를 물려받았다.

1961년 스톨트씨는 데니의유물및文書를 정리, 데니문서는 오리건대학 도서관에 기증했고 기타 부속문서와 유물의 반은 그의 딸 스테파니·윌리엄즈여사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태극기와「데기전기」등은 데니의 누나의 손자인 윌리엄·룰스턴씨에게 주었다.

데니는 4년간 高宗의 정치외교고문으로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했다. 淸나라 李鴻章은『朝鮮은 본래부터 淸의 屬國이다』는 정책을 추진하기위하여 묄렌도르프(穆麟德)의 후임으로 데니를 朝鮮에 파견했다. 그러나 1886년 서울에 부임한 데니는 淸·日등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朝鮮을 구출하는 길은 우선 親露拒淸政策으로 淸·日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朝鮮의 자주독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의反淸精神과 韓國의 獨立思想은 1888년에 간행된「淸韓論」에 잘나타나 있다.

1890년에 임기를 끝마치고 귀국할때 데니는 高宗으로부터 이 태극기를 下賜받고, 이를 본국으로 가져가 보관했던것이다. 이 태극기는 한국을 지극히 사랑했고, 진정한 자주독립과 主權維持를 절실히 희망했던 한미국인에의해 거의 1세기간 보존되어왔다. 이 태극기의 특색은 첫째 그 크기가 大形太極旗(260×175㎝)로서 만인을압도한다는점과 둘째 白色광목천을 두폭으로 이었고 太極과 卦를 각각 재봉틀로 정교하게 봉한점, 세째 卦의 색깔이 靑色인것을 들수있다. 이때문인지 이 태극기를 처음 펼쳤을때「아름답구나!」하는 감탄사가 튀어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現行의 검은색은 잘못된것

民族性 반영된 原型따라야

우리나라 국기제정의 유래를 여기서 詳論할바 못되지만, 1882년 朴泳孝가 태극기를 고안할때의「使和記略」에 의하면「太極은 靑·紅色으로 하되 네구석에 四卦를 그렸다」고 밝혔을뿐 卦의 색깔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언급하지 않았다.

高宗20년(1883년)정월에 정식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정한다고 반포해서 쓰다가 해방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를 국기로 제정하게 되었지만, 역시 卦의 色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행 태극기의 卦의 색깔이 언제부터 黑色으로 되었는지는 알수없다. 필자는 태극기의 黑色卦를 靑色卦로환원할 것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스워다우트박사가 발견한 데니 태극기는 現存하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最古의 原型太極旗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태극기도 원형태극기와 같이 卦의색깔을 靑色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東方」「東國」「靑丘」등의 이름으로 통해오고 있다. 五行說에 의하면 東은 靑, 西는 白,南은 赤, 北은 黑, 中央은 黃으로 상징하고 있다.

「韓國民의 色彩기호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은 靑·綠色을 가장 좋아하고,黑·赤色을 가장 싫어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우리 국민과 靑色은 민족성과 밀착되어있고,朝鮮王朝는 木이요, 靑色이라 卦의색깔을 靑色으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高宗은 그가 가장 신임하던 미국인외교고문관을 보내면서 이 태극기를 제작해서 下賜했다는 점이다.

朝鮮왕실에서 제작했기때문에, 규격·양식·색채등 모든 면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국기를 데니에게 하사했을것이다. 세째「太極旗의 原型」인 이른바「高麗國旗」(1874)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張學根교수에 의하면 그모양이 데니태극기와 흡사하며 특히 卦의 색깔이 靑色이라는 것이다(한국일보 1981년2월27일)。

그러므로 필자는 이 세가지 이유에서 卦色을 靑色으로 환원하기를 간망한다.

〈檀國大교수·西洋史〉

읽을만한 새책

현대인의 의식개선을위한 참여 (공제민著)

젊은이들이 그룹의 토의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발전시켜나가도록 꾸민책. 「인간의 자유와 안전」「자유와 자아개발」「자유와 공동체의식」등 3부로 나뉘어 있다. 【분도출판사刊·2천원】

예루살렘의 거지 (엘리·비젤著·배현나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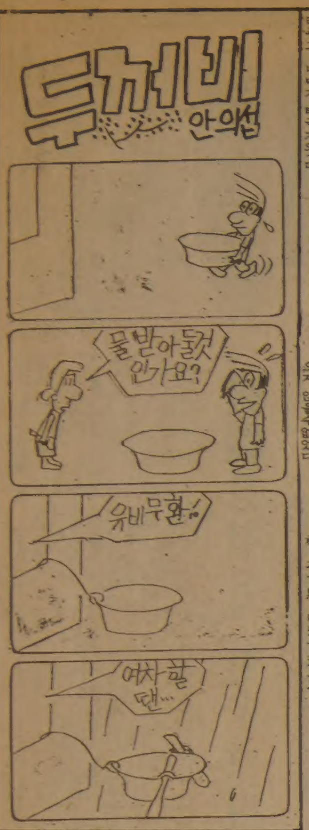
방황하는 유태인들의 전쟁과 죽음및 사랑에대한 공포가 神에대한 절실한 갈구로 형상화된 작품. 「黑夜」「새벽」「벽너머 마을」등으로 歐美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있는 엘리·비젤의 이소설은「통곡의 벽」앞에 모여앉은 거지와 환상가들을 통해 마음이 빈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보이고있다. 【실천문학사刊·2천4백원】

우리들의 신랑 까미유 (조반니노·과레스키著·황의방譯)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공자가 과레스키의 장편소설. 몰락한 귀족가문이 막대한 유산상속을 노려 급한대로 미천한 신분의 신랑을 골랐다 벌어지는 포복절도할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예조각刊·2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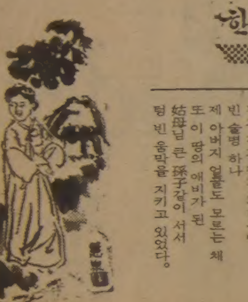
사회학과 예술의 만남 (R·니스베트著·이종수譯)

현대의 사회학이 자연과학과같은 실증적·경험적·분석적작업만을 능사로하다「科學主義」의 모순에 빠졌음을 고발하며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예술에서와 같은 창조적영감을 도입하도록 주장한 연구서. 「사회학적 초상화」「녹슨 진보」「사회학과 이데올로기」「두개의 혁명」등. 【한벗刊·3천원】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한국일보 詩壇



姑母

鄭烈

6·25 난리통에
3兄弟와 姑叔을 다 잃고
집도 住所도 姓名도 다 잃고
반쯤 失性하여 떠돌다가
番地없는 바람받이 언덕에서
10年 歲月 질경이같이 살던
80客 姑母가 風說처럼
서울로 떠난다는 날,
黃土벽의 움막에 들렀더니
주인네는 간데 없고
뜨락에 한창 살타는
노란 개살구 몇 개
姑母님 헛웃음만 웃고
외짝문 종이
갈기 갈기 찢긴 뫼마루에
빈 술병 하나
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채
또 이 땅의 애비가 된
姑母님 큰 孫子같이 서서
텅 빈 움막을 지키고 있었다.

流星의 賊 〈11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①

선조6년8월 심의겸(沈義謙)에게 대사헌(大司憲)의 직함이 내렸다.

오랫동안 속으로만 끓고있던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싸움이 심의겸의 대사헌 임명을 두고 드디어 폭발했다.

정언 정희적(正言·鄭熙績)이 경연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특명(特命)을 외척에게 쓰는것은 부당합니다』

외척인 심의겸에게 그런 높은 벼슬을 주어선 안된다는 뜻이다. 심의겸은 명종비(明宗妃)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아우이다.

임금이 노기를 띠고 말했다.

『오직 그 사람이 훌륭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외척이래서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대로 적으면—

「上震怒曰 只在其人之賢否耳, 外戚何尤焉」(상려…)

임금 앞에서 공공연하게 동인이 서인을 배척하는 말을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모두 사류(士類)로서 훈구파(勳舊派)들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동지였는데 어떻게해서 서로 반목하게 되었는지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좀더 소상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명종조(明宗朝)때 사인(舍人)으로 있었던 심의겸이 어떤 공무(公務)로 영의정 윤원형(尹元衡)의 집으로 간 적이 있었다. 윤원형의 사위 이조민(李肇敏)은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의겸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방엔 많은 침구가 쌓여 있었다.

『침구가 많은데 모두 누구들의 침구인가』

하고 의겸이 묻자 이조민이 그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김효원의 침구이오』

이때의 김효원은 아직 과거(科擧)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그 문명은 널리 나 있었다. 그런만큼 심의겸은 아니꼽다고 느꼈다.

『어찌 문학하는 선비로서 권세 있는 집이라고 해서 그집 무식한 자제들과 함께 거처할 수 있을까. 결코 절개있는 선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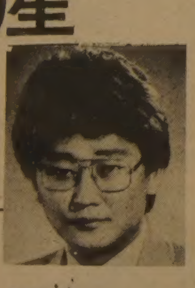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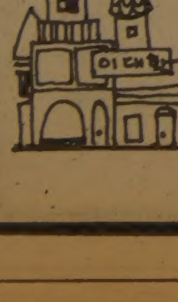
하는 말을 친구들에게 했다. 윤원형으로 말하면 문정대비의 아우임에 빙자해서 갖은 간사한 노릇으로 벼슬과 재물을 탐한 선비들로서 보아선 타기할만한 인간이었던 것이니 절조 있게 살아온 심의겸으로선 그런 말을 할만도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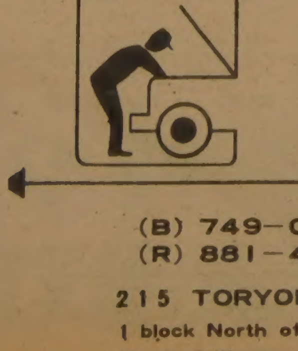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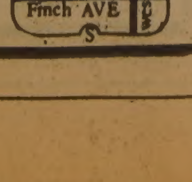
그러나 김효원과 윤원형은 서로 처위가있는 인연으로 해서 일시 기숙했을뿐이었다. 그후 김효원은 과거에 장원하여 재능이있는 선비로서 일반의 추앙을 받게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오건(吳健)이 김효원에게 심취하고있어 선비들을 보호하는데 성의가있는 심의겸에게 전랑(銓郞)의 직위를 주라고 추천했다. 그랬더니 심의겸은 전일 윤원형집에서 있었던 일을 오해하곤 그추천을 들어주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방해까지해서 김효원이 전랑이 되기까지 6·7년이나 걸렸다. 즐겨 청렴한 선비를 등용하는데 노력을 아끼지않은 의겸으로선 실로 뜻밖인 일이었다. 그만큼 심의겸은 김효원을 없수이 여겼던것이다.

여름밤을 식히는
노래·만담의 향연
7월3일(금) 하오7시30분
센트럴·테크니칼·스쿨
(베더스트×하보드)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래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현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대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현


花郎 闘志와 技倆의 대결 아르헨

오늘밤 大統領盃 결승전

한국의 花郎팀은 마지막 한고개만 넘으면 제11회 대통령盃 국제축구대회의 패권을 차지하게된다. 26일밤 아르헨티나의강호 라싱 데 코르도바팀과 겨룰 하는 花郎선수들은 투지와 팀웍으로 틀을뚫쳐 화끈한 경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하고있다. 金正男 金鎬坤 코칭·스태프는 25일하오 도로공사 잔디구장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우승은 결코 불가능한것이 아니다』고 강조,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결승전에 임할것을 지시했다.

花郎 "實戰경험은 한수낮지만 新銳앞세워 突破"

朴昌勳 李泰昊 李太燁 檀五篠등 신진선수들의 대활약이었다。花郎이 준결승에 진출하기까지에는 이들 신진들의 노력이 크게작용했다。다른때 같으면 선배들에 가려 주전으로 기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일약 이번대회서 주전으로 발탁되어 두각을 나타낸것

『솔직이 말해 코르도바팀의 수준은 우리보다 높다。개인기와 조직력, 게임운영면에서도 앞서있는것을 인정한다。그러나 미세한 기술면의 격차는 정신력으로 극복할수있으며 아르헨티나와의 大邱 예선때 실제로 이점이 증명되었다。우리선수들이 기동력

명(아무차스테기, 바예호, 오율란)은 개인기가 좋고 슛의 감각이 뛰어나다。수비에서는 노리에가(2번)가 큰 몫을하고 있다。花郎은 강한 아르헨티나를 맞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金正男코치는 빈틈 없는 수비를 강조 했고 金鎬坤트레이너는 사기면에

트헨티나는 다같이 개인기와 정교한 볼·컨트롤로 축구를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다른 두나라보다 플레이가 거칠고 격렬한 몸싸움을도 진다。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유럽의 조직력을 도입,기술과 힘이 가미된 축구로 세계정상권을 달리고 있다。라싱 데 코르도바팀

◇決戰을앞 두고 대통령배의 향방을 가리는결전을 앞두고 있는 韓國의 花郎(上)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팀(下)。

아르헨 "몸싸움 自信있다" 攻守에 빈틈없는 組織力

대회개막전만 해도 많은 국내 축구관계자들은 花郎의 예선돌파에 의문을나타냈으나 신진선수들을 대폭 주전으로 기용한 花郎은예선A조서 3승2무승부의 무패전적으로 4강대열에 올랐고, 준결승서 우루과이 마저 격침시켜 파죽지세로 행진하고 있다. 花郎의 결승진출은 花郎이처해 있는 여건으로보아 만족스런 결과였다。쿠웨이트월드컵 예선서 실패한상처가 채 아물지않은 상태에서대회를 맞았고, 공격진의 중심선수였던 崔淳鎬와 수비진의 핵趙榮增이 전열서이탈, 팀의 밑뿌리가 흔들렸다。이런 상황에서 花郎의이미지를 구해낸것은 邊炳柱

이다。특히 오른쪽 날개를 맡은 邊炳柱(20·연세대)는 현재까지 5득점, 개인 득점경쟁서 브라질의 프란시스코(6골)에 이어 2위를달려 대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金正男코치는 26일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신진선수들의 파이팅에 큰 기대를걸고 있었다。

을 극대화하여 90분 동안 줄기차게 뛰어준다면 승리할수있다』(金正男코치의 말)

아르헨티나팀은 공격과 수비진의 밸런스가 이번대회에 출전한 어떤팀 보다 잘 이루어져 있다。HB인 주장 가스파리니(10번)가 게임 메이커로 공격을 리드하고있고 전방공격수 3

서 아르헨티나선수들을 압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치밀한 지역방어로 문앞을 두텁게하고 공수전환템포를 빨리하여 찬스를 만들어 나가자。예선때 처럼 아르헨티나의 전방공격수 3명을 절대 놓지않도록 한다』

南美축구의 3强으로 알려진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로메로 코치는『한국이 홈그라운드의 잇점을 갖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실력면서 분명히 앞서있으므로 우승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라이벌 관계인 우루과이(다누비오)와 브라질(비토리아)간의 3·4위 결정전도 흥미있는일전이다。【金在契기자】

投手 펑크로 星武 자멸

遊擊手등판 韓一銀에 8-2大敗

실업野球

◇거뜬히 홈인 韓一銀 6회초 공격에서 좌전 안타로 출루한 2번 朴庸成이 후속포볼로 2進한후 4번 金容哲의 내야땅볼로 단숨에 홈인, 7점째를 올리고있다。

韓一銀行이 星武를 8-2로 꺾고 실업야구 후기1차리그서 1승1패를 마크했다。25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3일째 경기서 韓一銀行은 1회초 1점을 선취하고난뒤 6번 柳承安이 결승2타점 중전적시타를 터뜨렸으며 계속된 2死만루의 찬스를 9번 許哲九가 우전적시타를 살려 1점을 추가했다。韓一銀은 6회초에도 1死만루에서 4번 金容哲의 평범한 내야땅볼로 2점을 보태 7-2로 점차를 벌렸다。반면 星武가 5、7회말 각각 2死만루의 추격찬스를 잡았을때 韓一銀 盧相守는 5번 李光敍을 모두 범타로 요리、리드를 지켜나갔다。언더드로 盧相守는 이게임을 완투、산발5안타로 막아내 승리를 따냈다。

第一銀은 6회말 3번 金宇烈의 중월비로 결승점을올려 韓國化粧品에 5-4로 힘겨운 승리를 거두고 두팀 나란히 1승1패를마크했다。

한편전날韓國電力-經理團경기에서양팀의3번타자국가대표 柳斗烈과 張孝祚가 솔로홈런을 포함한 3타점씩을 올리는가운데 세차례의 시소를 거듭、팽팽히 맞섰으나 韓電이 8회말 1死만루의 찬스를 6번 金容雲이 스퀴즈번트로 결승점을잡아 5-4로 승리、양팀나란히 1승1패를 기록했다。

팀수비의 주축인 金在博이 손가락 골절상으로 결장한星武는 타력도 활기를 잃었을뿐아니라 마땅한 선발투수조차 없어 고전을 면치못했다。출중한 유격수로 활약하던 金鍾洙가 급조 투수가 되어 등판했으나 채1회도 마치기전에 집중5안타 2포볼 도루3개를 허용하고 대세를그르쳤다。金은 高麗大 재학시절 가끔 소방수로 나서긴했으나 그의 능력으로는 韓一銀의파괴력을 제어할수 없었다。

◇제3일전적

한일은행(1승1패)	400	012	100	8
성무	000	110	000	2

한국화장품	100	100	200	4
제일은	020	012	00×	5

▲홈런=金鍾模(2회말·제일) ▲홈런=李碩揆(5회초·한일은)

◇제2일전적

경리단(1승1패)	100	000	120	4
한전(1승1패)	000	102	02×	5

▲홈런=張孝祚(1회초·경리단) 柳斗烈(4회말·한전)

三千浦·成德 쟁패

中學농구 德成과 善一 뿌리치고

女中部

제6회 협회장기쟁탈 전국남녀중학농구대회 여중부패권은 금년 시즌들어 무패를 자랑하는 三千浦女中과 成德女中이 다투게 되었다。2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5일째 여중부 준결승전에서 三千浦女中은 德成女中을 일방적으로 공략、60-26、무려 34점차로 승리를 거두어 결승에 올랐다。

한편 成德女中과 善一女中의 대전에서는 중거리슛과리바운드가 약간우세한 成德女中이 52-46으로 득승、결승에 진출했다。

◇제5일 준결승 ▲여중부

삼천포여중 60(25-16 35-10)26 덕성여중

성덕여중 52(27-27 25-19)46 선일여중

美프로野球 最長戰기록

8시간26분간에 33회 치뤄

【포타킷(로드아일랜드)24日 聯合=美】美프로야구 포타키트·레드·삭스팀과 로체스터·레드·윙즈팀은 23일 세계프로야구사상 최초로 8시간26분동안 33회의 경기를 계속、이방면의 전무후무한 진기록을 남겼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등 美프로야구의 양대리그소속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벌이고 있는가운데 열린 이날의 경기는 두팀이 지난 4월19일 8시간 7분동안 2-2로 승부를 못가린채 32회를 끝으로 일단 중단한경기의 계속으로서 33회말 데드·볼로 진루한 레드·삭스팀의 1번타자가 후속타자의 잇딴 안타로 홈베이스를 밟음으로써 19분만에 끝났다。

두팀은 지난4월19일 저녁8시부터 경기를 시작、32회까지 2-2로 승부를 내지못하고 다음날 새벽4시7분 일단 경기를 중단했는데 당시 19명의 관객이 끝까지 스탠드에남아 경기를 지켜봤었다。

그러나 23일밤의 경기에는 수용능력이 5천8백명인 경기장에 6천5백명의 관중이 모여 성황을 이뤘으며 英國·日本등지에서는 60여명의 기자·방송해설가까지 파견、이경기의 향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경기는 공식기록에 8시간26분동안 계속된것으로 남게된다。

高校國弓팀 尙州군 4개교 첫創團

【尙州=聯合】국내처음으로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국궁부가 慶北尙州군내 4개고교 학생 33명으로 조직돼 24일 창단식을 가졌다。

한편 金種熙씨(51·대동상사사장)등 지역유지들은 이들에게 활·화살·도복 일체를 기증하고 계속 지원육성하기위해 국궁부후원회를 조직했다。

서울大新入生 고민한다

30.9%가 第2지망 계열·學科

동급생과 實力경쟁 落伍걱정

올해 서울大신입생 중 34%가 자신이 택한 계열이나 학과에 만족하지못한채 입학했으며 입학후의 가장 큰 고민은 동료들과의 실력경쟁에서뒤떨어지는문제인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사실은 서울大학생생활연구소(소장 曺大京교수·심리학)가 금년도 신입생5천2백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大신입생 현황에 관한 자료집」에서 밝혀졌다。

한국선수는 9명 WBC 6월랭킹

【멕시코시티 24日 聯合=本社特約】세계권투평의회(WBC)는 23일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를비롯 한국선수 9명이 10위안에 포함된 6월의 세계랭킹을 발표했다。

◇한국의 WBC랭커 ▲미들급10위 朴鍾八 ▲웰터급5위 黃忠載 ▲슈퍼·라이트급3위 金相賢 ▲라이트급10위 金光玟 ▲슈퍼·페더급2위 崔忠一、9위 李日福 ▲슈퍼·밴텀급9위 鄭巡鉉 ▲밴텀급8위 李承勳 ▲슈퍼·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 ▲플라이급9위 金泰式

制憲의원 姜達秀씨

제헌의원을지낸 姜達秀씨(경남河東출신·사진)가 24일밤10시 경남 三千浦市錦洞401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77세。발인은 28일상오10시。장지 河東郡辰橋面古梨里梨洞선영。유족으로 4남4녀가있다。

外上·할부판매에 치중

百貨店등 賣出방식바꿔

정부의 바겐세일규제조치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이는 대형백화점및 슈퍼마키트들은 새로운 판촉작전으로서 대량외상판매및 기업체행사용품 납품 고가품 할부판매등에 치중하는 한편 할인판매는 재고정리에만 적용키로 하는등 판촉방식의 발바꿈에 애쓰고있다。

25일 유통업계에따르면 시중의 대형유통업체들은 당국의 규제로 할인판매를 연4회밖에 못하게되자 계절성수기에 『상품大퍼레이드』및『특별판매』등의 기간을 설정、계절성수품판매에 열을 올리고있다。

44팀出戰 개막

고교축구 東萊·中東·昌信 1승

제14회 대통령 금배쟁탈전국고교축구대회가 작년도 우승팀 大田商高를 비롯, 44개팀이 참가한가운데 25일효창운동장서 개막, 11일간에 걸친 열전에 들어갔다。토너먼트로 벌어지는 이대회 우승팀은 오는8월日本에서 열리는 韓日고교교환경기에 한국대표로출전하게된다。

첫날 1회전에서 금년도춘계연맹전 준우승팀인 中東高는 全英秀와 韓鍾仁이 전후반서 1골씩을넣어 中大附高를 2-0으로 물리쳐2회전에 올랐다。

이날 昌信工은 3개월전에 창단되어 전국대회에 처음 출전한 豊基高(경북 영풍군)를 8-0으로 대파했다。昌信工은 80분경기에서 25개의 슛을 터뜨려 전반9분 朴良河의 첫골을 신호로 연속8골을 밀어넣었다。東萊高는 洪州高와 맞서 1-1로 비긴뒤、승부킥서 3-2로 이겼다。

◇제1일 전적

동래고 1(0-0 1-1)1 홍주고 <승부킥 3-2>

창신공고 8(3-0 5-0)0 풍기고

중동고 2(1-0 1-0)0 중대부고

계성고 0(0-0)0 청주상고 <승부차기 5-4>

丁海遠·邊炳柱 1골씩 花郎、우루과이 격파

대통령배 蹴球준결

◇땅볼슛 성공 경기종료 2분을 남기고 邊炳柱가 다누비오 GK라반데이라(1번)를 제치고 땅볼슛, 두번째골을 성공시키고있다。邊옆의 선수는 헤딩패스한 吳錫載。

한국의 花郎과 아르헨티나가 제11회 대통령배 축구대회 결승에진출, 26일 하오6시45분 서울운동장서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겨루게 되었다。花郎은 24일밤 서울운동장서 열린 준결승전서 전반 31분 丁海遠의 선제골과 경기종료 2분전 邊炳柱의 추가득점으로 강호 우루과이(다누비오)를 2-0으로 물리쳤으며、아르헨티나의 라싱데코르도바팀은 브라질의 비토리아 팀과 격전끝에 후반20분 아무차스테의 결승골로 전세를 뒤집고 2-1로 역전승、대망의 결승전에 올랐다。

브라질과우루과이간의3、4위 결정전은결승전에 앞서 26일하오5시부터 열린다。

◇준결승전적

한국 2(1-0 1-0)0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2(1-1 1-0)1 브라질

한국、말聯에 1패 亞洲학생축구

【자카르타24일AP=聯合】제10회 아시아학생축구대회에 참가하고있는 韓國고교 선발팀은 24일 자카르타에서 속행된 대회4일째 B조2차전에서 강적말레이지아에 페널티킥을 허용、1-0으로 패했다。

張吉山 (1598)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58)

여환은 바깥채객방에 원향이와 함께 기거하였다。원향의 거동은 몰라볼이만큼 차분해졌고 말없고 다소곳한태로 보아서는 전혀 미친 사람의 형용이 아니었다。다만이전에 알던 주위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것과 자기생각에 잠혀 남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것으로、아직 제정신이 돌아오지않은것을 짐작할 따름이었다。원향이가 가끔 마당에서 계화나 백련이를 만나면 방긋이 웃기도 하였으니、계화는 너무도 기뻐서 여환에게 가졌던 쑥스러운 생각도 어느덧 사라져 버렸다。여환은 밤에는 어린아이처럼 원향을 품고 자고、낮에는 뒷전 석불 아래 찾아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여환이 하루는 기도를마치고 일어서면서 보통 때늘 그러듯이 혼잣말비슷하게 원향을 향하여 중얼거렸다。

『네가 누구인지 오늘은알겠느냐?』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향이는 방글거리면서 대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만신 몸주를 받은 용녀라구요。미륵님이 방금 말했어。저하구 혼인하야 부부가 되어서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 하라던데』

여환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나마 그에게는 처음으로 말문을 연 원향이가 하도 기특하여 다시 물었다。

『용녀말구 네 이름은 생각나지 않느냐?』

『왜…나는 원향이야。저산아래 사선골 살던 원향이지』

말을 토해내자마자 원향은 소스라치며 주위를 둘러 보았다。

『엄마하구 춘보가…불속에서 못나왔어요。그리구 군졸들이 나를 붙잡아서 아아、무서워…』

『끼놈들 썩 물러 가거라!』

여환은 벼락 같이 소리치며 허공에다 주먹질 발길질을 해보이고는 원향이를 잡아 일으켰다。

『자 보아라。내가 다 쫓아버렸다。너는 긴 잠 자고 꿈을 꾼거다』

원향이는 비로소 여환을 찬찬히 올려다 보더니 소스라쳐서 잡힌 두 손을 뿌리쳤다。그리고는 또 한번 주위를 둘러 보았다。

『여기는 월정사란다。여환이가 생각나느냐?』

원향이는 맑은 눈을 들어 여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스님…정말 여환 스님이어요?』

『그래、옛말 해주던 여환이다』

『왜 이제…오셨어요?』

『네가 아프다구 그래서몇백리 길을 다름질쳐서 왔단다』

원향이는 자기가 남자바지에 중의장삼을 입고있는모양을 스스로 살피는양이었다。

나중에 원향이는 희미한기억속에서 사선골을 지옥으로떠올렸고 자기가 미륵을 만나몸을씻기우던 일도 생각해냈다。그여자는 날마다 미륵님의 품에안겨서 잤다는 것이었다。원향이가 제정신을 되돌이킨일은 경내에 다알려지게되었고 풍열스님도 기뻐하였다。그러나 아직 온전한것은 아니라서 가끔씩 원향이는 흐미한 세계로 돌아가려는듯이 보였다。여환이 안을내어 원향을위한 큰굿을 사당말에서 벌이기로 의논이되었다。옥여가 제반굿에 드는 미곡을 대기로하였고 사당말에서는 출행나갈 액막이 겸하여 원향의굿을 당굿으로늘리기로 하였던것이다。굿하는 날에는 제반절차에서 스님들은제외되었으나 마지막에 여환이 독경해주기로하였고 옥여와 풍열스님도 마을로내려갔다。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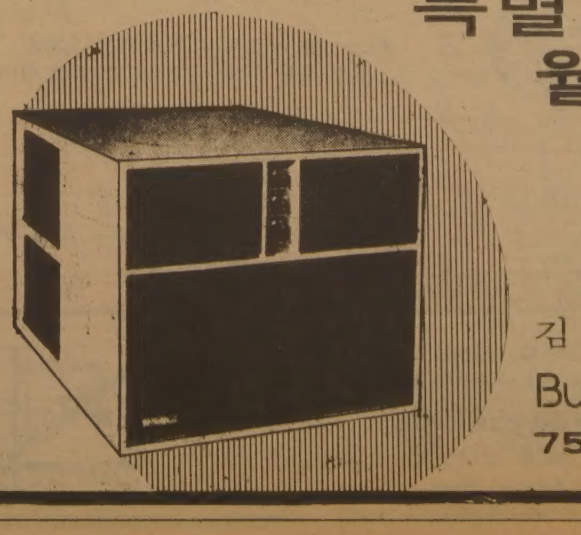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상해보험 • R.R.S.P
• 빌딩·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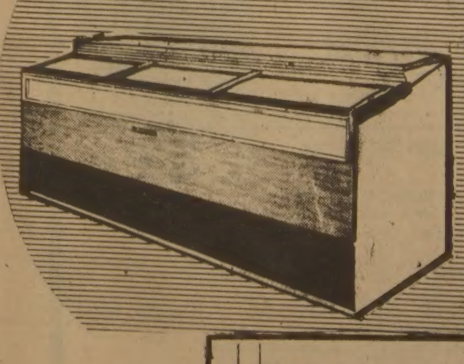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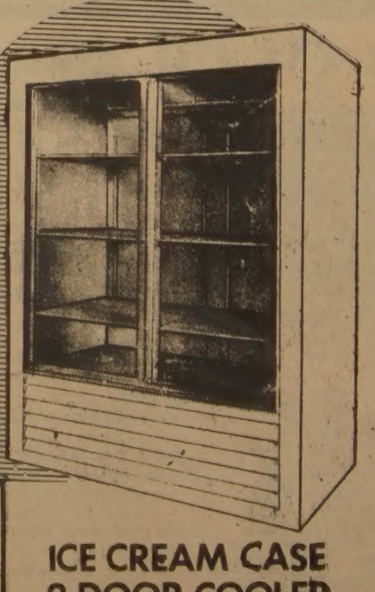
palmers refg. aircon. co.

GENERAL 냉장고 회사 지정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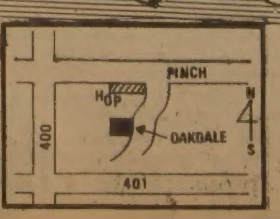
특별 대매출
월부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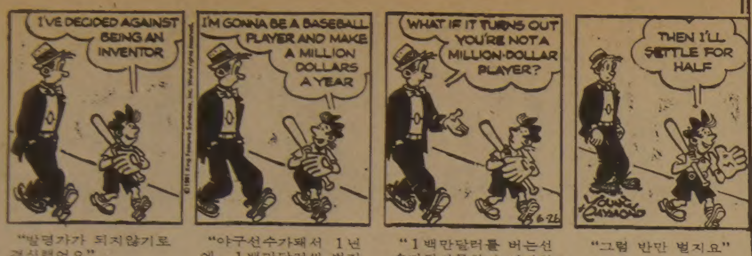


ICE CREAM CASE
2 DOOR COOLER



김 봉 균
Bus. 746-3840-41
750 oakdale road, unit #10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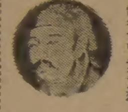


"발명가가 되지않기로 결심했어요" "야구선수가돼서 1년에 1백만달러씩 벌거예요" "1백만달러를 버는선수가되지못하면 어떡허니?" "그럼 반만 벌지요"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원덕

文豪의 名言

荀子 <前315?~前230?>



中國戰國시대末期의 大儒家。趙나라(山西省) 출생 名은況。荀卿또는 孫卿이라 불렸다。孟子의 性善說에 대해, 天道와人道를 구별한 소위性惡說을 주장, 人間이 착하게되기위해선禮로써矯正돼야한다고 말해, 法家思想에큰영향을줬다。「荀子」(20卷)를남김。

사람의 本性은 惡하다. 사람의 本性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면 爭奪이 생기고 辭讓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면 남을 해치고 傷케하는 일이 생기며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나면서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기에 이를 따르면 지나친 혼란이 생기고 예의와 조리있는 수식이 없어진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감성을 좇으면 반드시 서로 쟁탈하게 되고 본수를 어기며 이치를 어지럽힌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本性이 惡한게 분명하다. (性惡篇)

× × × × × ×

荀子는 별로 높은 벼슬도 않고 정생의 태반을 학문과 교육에 바쳤다. 孟子의 글이 열정적이며 激한데 비해 荀子의 글은 냉정하고 論理的이다.

사람의 本性은 나면서부터 惡하다

현재 전해진 20권32편의「荀子」는 荀子자신에 의해 쓰여진 부분과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모두가 처음 편집했던 그대로는 아니라는것이다.

그의 哲學은 하늘(天)이란 말로 표현되는 독특한 自然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있어 天이란 좁고 넓은 두가지 뜻이 있다. 좁은 天은 땅과 대조를 이루는 하늘이고、해와 달과 별과 구름이 있는 하늘이며 넓은 뜻으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는 개념의 自然이란 말에 가까웠다.

荀子의 사상가운데서 큰 관심을 끌었고 儒家 자체에서 혹평을 받은것이 性惡說이다. 그러나 性惡說은 실은 荀子의 기본적 觀念가운데의 하나에 불과하다. 孟子의 性善說과 대치시켜 생각돼왔기에 儒家에 의해 무조건 否定됐다.

荀子가 말하는 本性가운데는 사람의 욕망뿐、인간의 思考작용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데 주목해야한다. 다시말해 荀子는 本性과 知慮는 각각 독립된 心理作用이란 전제아래 性惡說을 말하고있다.

보통의 경우 善과 惡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荀子에 있어선 善은 적극적 가치가 주어지며 惡에는 소극적 가치만이 주어진다.

그러나 荀子는「本性이란 내가 만들수는 없는것이지만 그러나 敎化시킬수는 있다」고해 사람스스로가 善해질수있는 능력、곧 善의 요소까지 지니고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荀子의 사상을 종합하면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란 말로 표현될수있다.

荀子로써 儒敎의 정통이 만일 孟子가 아닌 荀子로써 代替됐더라면 儒敎가 지배해온 中國社會가 얼마나 달라졌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혹 西洋에 못지않은 漢民族의 科學文明이 이룩됐을지도 알수없는 일이다. 이처럼 독특하고도 훌륭한 古典이 많이 읽혀짐으로써 東洋文化는 새 발판을 얻게될것이 분명하다.

文化短信

張道斌기념사업회 이사장에 金容基씨

汕耘 張道斌선생기념사업회는 24일하오7시 서울종로 高友會館에서 1차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金容基씨(가나안농군학교교장), 상임이사에 曺佐鎬씨(前成大대학원장), 편찬분과위원장에 千寬宇씨(史學者), 장학분과위원장에 李元洪 元KBS사장을 각각 선출하고 고문으로는 李寬求씨와 韓景職목사를 추대했다.

이 기념사업회는 평생을 민족정기함양에 힘쓰고 언론인이자 國史學者이며 교육자이기도한 汕耘선생이 남긴 62종의 단행본과 유고4편을 편찬하여 82년까지 全5卷을 간행한다.

哲學會국제학술회

한국철학분과회는 26~27일 이틀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근세유학의 발전」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주제발표자는 徐首生(慶北大) 柳仁熙(延世大) 鄭珖淳(한국인문과학연구소) 劉明鍾(東亞大) 裵宗鎬(延世大) 酒井忠夫(일본筑波大) 李完栽(嶺南大) 尹絲淳(高大) 李楠永(서울大) 河岐洛(啓明大) 柳正東교수(成大) 등.

다시 登場한 두人氣가수

桂銀淑·趙容弼「空白의 속사정」

인기정상을 달리고있는 가수 趙容弼과 데뷔후 급성장을 보인 신인가수 桂銀淑이 3개월여의 공백을 깨고 다시 무대에섰다. 趙容弼은 방송출연거부선언후 은거하다 지난 15일께 홀연히 모습을 나타냈고, 桂銀淑은 타의에 의한 활동정지로 노래와 멀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온것. 활동을 재개한 두 가수의 「1백일 空白의 속사정」을 들어본다.

◇桂銀淑

◇趙容弼

桂銀淑 "출연禁止아픔 체험, 移民생각도"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기분이에요. 「노래를잃은 피끄리」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모를겁니다』

출연정지 1백일만에 방송과 일반무대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미모의 가수 桂銀淑의 말이다. 그는 출연펑크와 공연질서를 문란케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초 방송국과 전국공연단체연합회로부터 출연정지를 당했다가 풀려난 것이다.

『3개월여였지만 3년보다 긴 눈물의 세월이었어요. 차라리 밥을 굶는게 낫지, 노래를 잃는다는것은 죽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의 노래처럼 「기다리는 女心」으로 방에 갇혀 살다 「노래하며 춤추며」의 무대로 돌아온 桂銀淑은 『출연정지라는 형벌 아닌 형벌이 조금만 더 계속됐다면 라스베이가스에 살고있는 외숙모의 이민권유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눈물을 떨구었다.

출연정지를 받을때 떠돌았던 재미동포와의 염문설은 낭설이라고 밝힌 그는 『쉬는동안 다행히 2편의 CF에 출연, 생계를 이어왔다』고 했다. 『1백일동안 아집덩어리인 성격을 뜯어고치기위해 노력했다』며 출연정지해제를 제2의 가수생활의 받침돌로삼아 신인의 자세로 성실히 노래하겠다고. 그는 최근 「太陽음향」의 전문가수가 됐다.

趙容弼 "새면모위해 新曲준비에만 심혈"

『밑천이 달린다고나할까, 같은 TV에서 똑같은 노래로 팬들을 대한다는게 면목이없어 도망을쳤어요. 그런데 피해간곳이 호랑이굴이었어요』

趙容弼이 말하는 「호랑이굴」이란 가요계에서 말하는 녹음실. 그는 G레코드사 녹음실에서 신곡준비로 2개월을 보냈다고한다. 새로운 모습의 趙容弼을 보여주기위해 잠정휴업을했다는것.

80년4월 「창밖의 女子」, 80년11월 「촛불」을 발표, 큰 히트를 기록한 그는 지난 3개월여를 모교(京畿華城 松山高)의 장학기금 마련쇼를 비롯한 몇차례의 신체장애자 돕기 자선공연을 제외하곤 두문불출해왔다. 그동안 준비한 신곡은 鄭豊松 작곡의「미워 미워」와 자작곡「일편단심민들레야」등 10여곡. 출반을 앞두고 있는 「미워미워」는 이별을 주제로한 월초풍으로 옛냄새가 물씬 풍기는 노래라고.

趙容弼은 쉬는동안 日本의 모프러덕션으로부터 1개월예정(공연일수 20일)의 공연요청을 받고 고심중에 있다. 日本측은 1개월에 3천만엔의 출연료를 제시했지만, 日本의 톱가수가 하루 2백만엔의 출연료를 받고 있고 趙容弼외에 그룹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동행해야한다는 점을들어 5천만엔을 요구했다는 것. 출연료가 결정되면 7월중 東京, 大阪등 日本대도시에서 공연을 가질예정이다.

鄧小平은 열렬한팬 존·덴버中共서人氣

【北京＝聯合】中共을 방문중인 인기팝송가수 존·덴버는 中共의 실권자인 부주석 鄧小平이 자신의 열렬한 팬이며 원한다면 中共공연을 위해 다시 와도 좋다는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덴버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中共을 몹시 사랑하기때문에 『中共에서 공연기회를 가지게 될것으로 확신하며 서방의 어느 가수보다도 더큰 성공을 거둘것』이라고 장담했다.

鄧小平은 지난 1979년 1월 美國을 방문했을때 덴버의 워싱턴공연을 구경하고 그의 노래에 매료됐으며 그의 공연광경은 TV를 통해 中共전역에 방영되기도 했고 그의 레코드는 中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있다.

演藝界소식

11일만에 6萬몰려 영화 자유부인

25년만에 리바이벌된 영화 「自由夫人」(원작鄭飛石·감독朴浩泰)이 개봉 11일만에 6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서울기준), 불황의 영화가에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 하루평균 5천5백명의 관객이 몰려 外畵의 관객동원을 능가하고 있는데 관객은 거의가 40대의 여성층이라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조지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인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742-0800 미스타 차

입주하시거나 출퇴근하셔서 애기 돌보아 주실분
오후6시 이후 연락
☎: 535-4441

파타임 스토아 헬퍼구함:
빅토리아·팍과 댄포트
☎: 759-7501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961-6647 미스타 최

MONAMI JAPANESS R.: 웨이트레스
(11:2PM)월~금요일. 114 Laird Dr., Leaside
☎: 421-6016(Mr. Masuda) Call after 2PM

주말 케쉬어 구함
WILSON과DUFFERIN지역
☎: 638-5530 미세스 김

애기와 살림 돌봐 주실분 구함
☎: 425-9839(B)
438-0920(R)

남학생 가게 헬퍼 구함
261 SCARLETT RD.
☎: 767-0762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 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COOK(한식과 일식), 웨이트레스 구함
2432 EGLINTON AVE. E.
☎: 759-8512 CHOI'S레스트랑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인쇄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 746-0675

1) 풀타임 헬퍼 남자 주5일(60시간)시간당 $6
트럭운전, 영어요함.
2) 토, 일요일 남자 파타임 요함.
3) 가정일 돌보실분 오전8시~오후6시, 출퇴근,
월~토요일까지, 주6일, $100.00
☎: 762-1572(B), 769-9854(R) 미세스 김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매매및 양도

벡커 매매
연매상 30만달러
☎: 783-1984

가게매매: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 (제인×웨스턴)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1169 WOODBINE AVE.
☎: 423-7939

몬트리올 영어지역 스토아 매매:
주매상 $6000~6300개런티. Asking $60000+스탁.
Cash $55000이상. 맥주와 와인 취급하며 배달 없음.
주위에 새로운 빌딩 건설중임
☎: 1-514-486-0944

캐네디안 그로서리: 주매상 13,000불보장, 15만5천+스탁
다운페이 $100,000. 4963 QUEEN Marry Rd. Montreal
영업시간: 월, 화, 수, 토 아침8시~8시
목, 금 아침8시~9시
일요일 아침9시~7시
꽃매상 30% 이상이며 이익좋고, 조건좋은 가게임
상호 MARCHE GLOVE
☎: 1-514-737-1844, 1-514-737-1841

가게EQUIPPMENT매매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고깃간등
☎: 653-6366 9~5시
292-0332 6시이후 캄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밀크스토아 매매
4630 KINGSTON RD.
☎: 282-7596

DONNA LIA FRUIT: 성업중인 가게를 매매합니다.
주매상 $6000.
☎: 654-7240 1362 ST. CLAIR W.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781-7080 458 CALEDONIA RD.

주인이 은퇴상 팔려고 하는 이윤좋은 비즈네스.
에토비코에 쇼핑 멀안에 있음 ASKING $95,000
☎: 233-9866

스토아 매매: OPEN WINDOW BAKERY및 그로서리가게
이주관계로 매매, 직접내방 상담요망
1550 BLOOR ST.

물건판매: KEY MADE MACHINE, WINDOW SHOW CASE, CASH REGISTER, REFRIGERATOR.
☎: 362-3592

아이스크림 기계 팝니다: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465-4003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535-2804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275
☎: 635-1038

버라이어티 스토아 SET UP사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465-6247 JACK PONG

가게매매:
주매상 $4,200, 살림집포함(4베드룸) 렌트, 리스,
호조건. ☎: 1-579-4451(OSHAWA)

벡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325 ST. GEORGE ST.
☎: 924-7696 미스타 리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6000이상, 리스5년,
옵션10년.
☎: 822-0363

벡커프렌차이즈 급매
☎: 267-2647

코인 세탁소 SET UP하실 분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아주 싼 값에 팝니다.
☎: 487-5000

OPEN 하우스
토, 일요일 오후1~5시, 평일 오후6~8시
10.5% 몰게지 시작, LANSDOWNE서브웨이 가까운지역
6룸, 2키친, 현 이자율에 비해 4년동안 $2500 세입
가능, ASKING $69,900에 약15000다운
☎: 232-2200 JOHN SCHWEIGEL
RED ROSE R. E. LTD. REALTOR

인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종남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진표

꽃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769-0609 여정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동환

정은 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크리스티미용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시설및 수리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633-0656(B), 493-7185(R)
정해문(핀치×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타일•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손조정, 건반, 캐비넷칠,조율 중고매매. 김수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8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상철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466-4304, 469-3341 박기황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환영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824(B), 226-5430(R) 변달원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B) 862-1433, (R) 493-8792 송창섭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다라운수

기타

영어개인교수지도함
상세한 문의는
☎: 279-7433 EVENING

사람을 찾음:
천두섭 딸 천혜경 찾음 76년 왔음. 서울 을지로 5가 창림사 이태희 씨에를 ☎: 1-206-329-5903

BEAR PAWS, GOAL BLADDERS
웅담 팝니다. ☎: 463-3572
오전10시~오후7시(월~금)

6·25 특별연재

캐나다군의 한국 참전

이지역은 최전방에서 수마일떨어졌고 여 장갑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방어선에는 헛점이 많았다. 유엔군은 언덕과 능선을따라참호를 팠다. 앞쪽의 최전방에는 한국군 제6보병사단, 미제9군단이 있었다.

4월22일 자정 공산군의 맹렬한 공세가 시작되자미제9군단이 먼저 밀려났다.

전한국의 방어선이 공산군의 공세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패트리셔앞에있던 한국군은 수시간만에 10마일이나 쫓겨났다. 그들은 다시 재규합,방어선을 폈으나 다시 8마일이나 또 밀렸다. 또다시 규합한한국군은 후방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번에는 4마일을전진했다. 이것은 비극에로의 전진이었다. 한국군은 곧 완전 궤멸됐다. 한국군과 같이있던 뉴질랜드군도 미제105미리 자주포부대와 함께 후퇴했다. 패트리셔부대의 임무는 퇴로를 사수, 한국군 사단과 다른유엔군의 완전섬멸을 막는것이었다. 패트리셔에게는 「싸워서 사느냐, 싸우다가 죽느냐」하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캐나다군은 계곡을 지나 후퇴하는 다른부대에 합류할수가 없었다. 이 계곡은 "단장(Heart break)의 계곡"이라 불리웠다.

중공군이 밀려와 먼저호주군에게 하루종일과 밤에 걸쳐 공격을 퍼부었다. 전투가 너무 근접해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마침내 포연과 집중사격의 엄폐속에 호주군은 155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퇴각했다. 중공군의 다음목표는 패트리셔였다. 패트리셔의 A, B, C, D, 4개중대는 적의공격 준비를 관찰할수있는 외따로 떨어진677고지에 있었다. (677은 해발677m를 뜻함)

4월24일밤10시 공격을 알리는 포성이 고막을 찢었다. 박격포에이어 기관총의 탄도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이어서 보병이B중대 경계지역에 침투했다. B중대는 기관총으로 [illegible]을 저지했다. B중대에박격포몰을 연지 정확히 한시간후 전방소대를 어느정도 부수고 또다른 공격이 시작되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중대로 들어와 재배치되자 믿어지지않는 격정과용맹이 숫적으로 우세한 공산군을 격퇴했다. 이때 1백여명의 중공군이 패트리셔 본부 후미를 공격했다. 본부는 B중대방어전내에 있었으나 병력이 모자라 대대의 81밀리 박격포가 최소 포격거리인 2백야드밖의 중공군을 두들겼다. 이와함께 B중대 50밀리 기관총이 지원 나왔다. 견디다 못한 중공군은 후퇴했으나 다시 공세를취했다.

밤새도록 중공군은 몰려왔고 밤새도록 패트리셔는 있는힘을 다해 싸웠다.

패트리셔는 완전히 포위되어 사방에서 공격받았기 때문에 어떤때는 이쪽의중공군이 저쪽의 중공군에게 총질을 했다. 한번은 패트리셔가 2시간 내내 포격을해서 간신히 중공군을 격퇴시킨때도 있었다.

이 전투에서 여러명의영웅적인 병사가 있었지만특히 W·R·미첼일병과 그의 브렌(Bren)자동화기가 특기할만 하다. 지금은 구식이지만 브렌자동화기는 길이45″, 무게 22파운드이며 아주 다루기힘든 자동화기이다. 이 화기는 받침대에 받쳐져있어 그뒤에서 사격수가 엎드려서쏘고 또하나의 보조수가 탄알을 장전하면서 사수를 엄호한다. 비상수단으로 「브렌」총은 엉덩이에 올려놓고도 쏠수있다. 이렇게하기 위해서는 힘과 강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사격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화에서나 볼수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있어야만 한다.

미첼일병은 뜨겁고도 무거우며 진동이심한 브렌총을 메고 끌면서 이 참호에서 저참호로, 진흙탕의 언덕위를 기고 뒹굴면서뛰어다녔다. 이것은 보통의용맹과 인내심이 아니었다. 그는 두군데나 심한부상을 입은채 싸웠던 것이다. 그는 가슴에서 밤새도록 피를흘렸다. 날이새자 전투는 끝이났고 그는 피를 너무나흘려 서있을 힘도없이 쓸어졌다. 헬리콥터에 의해 야전병원으로 즉각후송된그는 뒤에 특별무공훈장을 받았다.

놀랍게도 캐나다군의 피해는 가벼웠다. 여기에는 여러이유가 있다. 캐나다군은 용감했지만 우둔하지는 않았다. 방어진지는 잘 구축되어 아군을 끼리서로 엄호할수가 있었다. 병사들은 잘 훈련되어있었고최고의 신체조건들을 갖추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소총과 수류탄 세례속에가파른 언덕위를기어 올라와야했다. 중대자동 화기들은 중공군의 전면과 측면을 두들겼다.

이 가평전은 캐나다군이 참전한 전투중 전형적인것이다. 캐나다군은 패트리셔외에 로열22연대, 로열·캐네디언연대가「스트라스코나」형 탱크, 장갑차, 로열·캐네디언기마포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투에임했다. 이 가평전투는 연합군 1개사단을 전멸에서구출한 가장 맹렬한 전투였으며, 캐나다군이 한국전에서 참가한 어느전투보다도 높이 평가된다.

한국전에 참전할 가치가 있었나? 그렇다. 한국은후에 중동, 콩고, 사이프러스등에서 유엔평화군을 파견하는 선례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스탈린의 취약지구공격을 물리쳐 버렸다. 서방세계는 이러한 취약지구공격에 연합전선을 필수 있다는것을 과시한 것이다.

캐나다로서는 제3세계의 신뢰를 받아 이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병사들이 전선에서 싸우는동안 피어슨 외무장관과 세인토·로랭수상은 인도의 네루를 비롯한 다른 중립국 수뇌들과 휴전을위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매년 10월1일과한국국군의 날에는 오타와의 한국대사관에서 리셉션이 있고 참전용사들은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조용히 추억을되살린다. 지금은 지하자원성에서 일하지만 한국전때 제22연대의 소위였던 프랭크·제프리씨는 한국전이 좋았던 것은 액순, 흥분, 승리및 평가 이루어 놓았다는 성취감 때문이라고회상한다. 가장 괴로왔던것은 전방의 포성이 멈춘후 다처올 적에대한 긴장감과 밤과낮이 지루하게 무척길었던 점이었다.

(계속)

〈건강생활 시리즈〉

건강의 비결 ②

돈밀약국 이 요 한

이 글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현재 토론토에서 돈밀약국 경영중인 이요한씨가 교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되고자 특별집필한 것이다(편집자 주).

◁필자소개▷

1963년 : 서울대학 약대 졸업
63~69년 : 국립공업연구소 식품공업과 근무
69년 : 캐나다 이민
72년 : 토론토 약대 재학
71~74년 : 서니브룩병원 약국 근무
74년 : 약사면허 획득
74~75년 : 셔퍼스·드라그·마트 근무
75~현재 : 돈밀약국 경영

건강하면 100살 살수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다. 여섯째날 마지막으로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다. 하느님이 각종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실적에 각 동물과 사람의 수명도 정해주셨으리라 믿는다. 사람은 백년을 산다는 것은 우연이거나 기적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백년을건강하게 살수있도록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우리는 추리해 낼수있다.

이제 사람과 가까운 동물의 수명을 보자. 개나말의 수명은 각 성장기간의 5배로 되어있다. 즉 개는 성장기간이 2-3년이므로 수명은 10-15년이고, 말은 성장기간이 4년으므로 수명이 20년이고, 사람은 성장기간이 20-25년이니 100-125년이 수명일것이란 결론이 된다.

이는 하나의 억측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상에는불로장생의 낙원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던 이야기가 동양적이라고 하면 James Hilton의 소설 "잃어버린 수평선"(Lost Horizon)에 나오는"상리라"(SHANGRI-LA)라는 계곡은 서양인이 그리던 불로장생의낙원이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많은이가 보았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불행히도 지구상의 불로장생낙원은 한국이나, 캐나다가 아니지만 아담과 이브의 직계자손이사는 곳으로는 4곳이나 있다.

첫째가 남미의 에콰돌의 "빌캄밤바"라는 고 지대의 계곡에사는 사람들인데 거의모두 백년을 살며, 죽는날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성적으로도 모두 건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질병인 심장마비가없다는것이 특색이다.

둘째는 히말라야에 있는 "훈자"라는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의 과반수가 평균 90세이상을 사는데, 어느북미인의 경우 100명중 다만 6명이 그정도 산다는데 비하면 역시 지상의 낙원이다. 진시황이일찌기 알았더라면 멀지않은 곳이니 수도를 그곳으로옮겼을뻔한 곳이다.

그밖에도 소련과 지중해연안을 들수 있다. 이들지역의 공통점은 공기좋고물좋으며, 매일 섭취하는 영양가(칼로리)가 2000 미만으로 북미의 3000에비해2/3이하이며, 금연금주는물론 이들은 과일과 야채를 즐겨 먹으며 단백질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서 우리와 같이 섭취하는것이아니고, 적당한 운동이나 노동을 죽는날까지 계속하는데 이 모든것이 건강과 장수의 조건이 되는것이다.

(계속)

533 2361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여름밤을 식히는 노래·만담의 향연

7월3일(금)7시30분 센트럴 고교(베더스트×하보드)

SunLife OF CANADA

"여성보험인등장"

Sun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Congratulates Kim Shinmyong on her appointment as sales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s Toronto Metro Branch.

김 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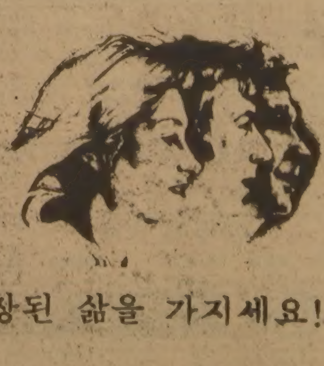
Sun Life 는 종전과는 달리 「생명보험」 뿐만이 아니라 교육, 연금, 주택, 사업금융 모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읍니다.

이질 문화권의 캐나다 대륙을 딛고 새꿈을 이룩하려는 이민생활에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는 보험에 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성심 성의로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에 일익번영이 깃들기를 앙망 합니다.

김 신 명 드림

취급보험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연금제도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B)922-3111 R)439-8885

이런것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NORITAKE 1981 BLITZ SALE)

- 이번에 Noritake회사의 특별한 배려로 저희 상점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모든 고급 Noritake China set를 정가에서 30% 감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지정된 10개품목은 정가에 반액으로 판매합니다.
- 대형 접시와 만두, 냉면그릇으로 쓰기 좋은것과 찜 그릇등 정가에서 70% 감한가격으로 판매하겠읍니다.
- 식당, 교회 혹은 단체에서 비품으로 쓰시기 좋은(Heavy Duty) 그릇을 정가에서 80% 까지 감해서 공급하겠읍니다. (예 : $10짜리면 단 $2에)

※사고저 하시는분은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AMIK CRAFT SHOP

특가기간 : 6월23일부터 7월11일까지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 sheppard의 sheppard center내)
전화번호 : 221-5990 Mrs. 고